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위트니스 리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The
ALL INCLUSIVE CHRIST

위트니스 리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모든 판권은 본사 소유입니다. 본 출판사의 명기된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체계를 포함하여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재생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를 위한 초판 1쇄 / 2004년 4월 30일

ISBN 89 8478 212 2 03230

무료 배포처

레마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 1

Originally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lifornia U. S. A.
Korean Copyright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목차

서문 · 5

제1장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소개의말 · 7

제2장 좋은땅의 광대함 · 19

제3장 좋은땅의 높음 · 29

제4장 좋은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 물 · 39

제5장 좋은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I. 양식(상) · 49

제6장 좋은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I. 양식(하) · 63

제7장 좋은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II. 광물(상) · 73

제8장 좋은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II. 광물(하) · 85

제9장 땅을 점령하는 법 I. 양, 만나, 언약궤, 성막에 의하여 · 97

제10장 땅을 점령하는 법 II. 제물과 제사장에 의하여 · 109

제11장 땅을 점령하는 법 III. 통제하는 원칙에 의하여 · 125

제12장 땅을 점령하는 법 IV. 군대 편성 · 141

제13장 땅을 점령하는 법 V. 반대 요소들 · 153

제14장 좋은땅에 들어감 · 171

제15장 그땅에서의 생활 · 183

제16장 그땅의 결과 성전과성(城) · 197

서문

이 책은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소개의 말

성경: 창 1:1, 2, 9, 12, 26, 27, 29, 7:17, 8:1, 13, 22, 12:1, 7, 출 3:8, 6:8, 겔 20:40, 42, 고전 1:30, 골 2:6, 7, 16, 17, 3:11, 엡 2:12, 갈 5:4.

앞으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관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는 또 이 가나안 땅에 건축되었던 성(城)과 성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총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가 되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이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총만인 교회이다. 우리가 다룰 것이 다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총만인 그분의 몸, 곧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유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즐기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실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들은 단지 실재의 그림자요, 표상일 뿐이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접촉하고 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의복을 입는다. 주택에서 살고 있고 자동차도 몰고 다닌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직 그림자요, 표상일 뿐이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은 참된 음식이 아니며 참된 음식의 표상일 뿐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참된 물이 아니

다. 우리 눈앞의 빛도 참 빛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상이다.

그렇다면, 참된 것은 무엇인가?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해 주고 싶다. 참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음식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음료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실재가 되신다.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참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는 살아 있다. 내 몸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인 참 생명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매일 나는 나의 집에서 살지만 이곳이 참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깨닫는다. 어느 날 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이곳은 저의 참 거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실재의 거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 자신만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그렇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거처가 되신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양식이시고, 여러분의 생수이시고, 여러분의 빛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바로 땅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땅 위에, 이 땅의 한 부분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이 땅이 여러분의 참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 땅조차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땅이 되신다. 음식도 하나의 표상이요, 물도 하나의 표상이요, 빛도 하나의 표상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의 표상이요, 땅도 여전히 하나의 표상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땅이시다. 나는 삼십 년 이상이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땅이시라는 것은 최근까지도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양식이시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의 땅이시라는 것은 몰랐다.

지난 수년 동안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더욱더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땅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의 거처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이시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 채 이십 년 이상, 날마다 성경을 읽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편 90편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1절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 다”라고 말하였다. 오! 그날 주님은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분이 나의 거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때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삼 년 후 주님은 나의 눈을 훨씬 더 열어 주셨다. 주님은 나의 거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땅이시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주님은 나의 땅이시다. 오! 그 순간부터 왜 주님께서 구약에서 항상 땅에 대해 언급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를 어떤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끝까지 주님께서 거듭 땅을 강조하고 땅을 언급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 ... 땅 ... 땅 ...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 내가 이삭에게 약속한 땅 ... 야곱에게 약속한 땅 ...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땅, 땅, 항상 그 땅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

구약의 중심은 성 안에 있는 성전이다.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은 땅 위에 건축되었고, 성전과 성이 건축된 그 땅이 바로 구약 성경의 중심이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에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은, 상징적으로 말해,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구약은 창세기 1장부터 언제나 그 땅을 중심으로 삼고, 항상 그 땅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을 보자. 아마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을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이 장에 대단히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는 표면 아래 깊이 감추어진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땅'이다. 깊이 생각해 보라. 창세기 1장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땅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 땅 위에서 일하기를 원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하늘들과 땅)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어떠한가? 땅 위에는 혼돈이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이 땅 위에 있었을 뿐이다. 땅은 깊은 물 속에 묻혀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나서 땅 위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그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깊은 곳에서 나오신 것도 바로 셋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사망의 물 밖으로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여러분은 이 예표에서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면 땅이 물에서 나온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등, 온갖 종류의 생명이 생겨났다. 이제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즉 주님께서 사망으로부터 나오신 후 그분은 풍성한 생명을 산출하셨다. 그렇다. 그분은 생명의 산출물로 충만하셨다. 그런 다음 생명으로 충만한 이 땅 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었다. 주님께서 사망에서 나오신 후, 생명의 풍성이 산출되었고, 이 생명의 풍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대표가 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출된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땅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땅 안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누리며 이 땅 위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그리스

도의 예표인 이 땅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을 누렸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풍성을 누린 결과 성과 성전이 출현했다. 성과 성전은 이 땅을 누린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성과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은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은 그 땅을 누린 결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 땅을 누릴 때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이다. 만일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다면, 어느 정도 누린 후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성전,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교회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신약에 기록된 것과 정확하게 똑같다. 전혀 차이가 없다.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땅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느 정도 누린 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교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 사상이다.

땅을 위한 전쟁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무섭고 심각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탄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 보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을 누리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지 오래지 않아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행했다.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셨고 그 심판 때문에 땅은 깊은 물 밑에 잠겨 버렸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 동안 방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땅을 깊은 물에서부터 회복시키셨다. 이 회복된 땅 위에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 받은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 오래지 않아 대적이 또다시 개입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사람을 속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회복된 땅은 다시 한 번 깊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뒤덮었고 상징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밖에’ 라는 표현을 기억하는가? 홍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의 예표였다.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방주의 구속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땅을 소유했고 땅의 풍성을 누릴 권리를 얻었다. 방주는 그들을 땅의 누림으로 다시 이끌어주었다. 홍수는 사람들을 땅에서 분리시켰지만 방주는 사람들을 다시 땅으로 데려왔다. 다시 한 번, 사람은 땅을 소유했고 땅의 풍성을 누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대적은 땅을 누리는 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또다시 더 많은 일을 행했다. 그리하여 사탄의 선동으로 반역하게 된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어떤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항상 땅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적의 일은 항상 땅을 혼돈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다. 이제 주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다시 한 번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점점 그 땅에서부터 이집트로 흘러 떠나려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이 땅으로 데려오셨지만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오랜 후에 주님은 또 한 번 이집트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시어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대적은 또다시 활동하여 바벨론 군대인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약탈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칠

십 년 후에 주님은 그들을 다시 한 번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사실 이것이 구약의 역사(歷史)이다. 주님은 몇 번이나 이 땅을 회복 하셨던가? 적어도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은 될 것이다. 주님은 땅을 창조했지만 대적은 그것을 망쳐놓았다. 주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대적은 다른 것으로 반격했다. 주님은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움직이셨지만 대적은 또다시 반격했다. 오, 여기에 전쟁이 있다. 여러분은 보았는가?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약에 기록된 전쟁들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들은 무슨 목적을 위해 싸웠는가? 여러분은 그들이 모두 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적은 땅을 습격하여 땅을 점령하러 왔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땅을 회복하시려고 일하셨다. 구약의 모든 전쟁은 이 땅과 관계있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분량

이 땅은 무엇인가? 결코 잊지 말라. 이 땅은 곧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단지 ‘그리스도’가 아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는 그분이 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묻고 싶다. 여러분의 체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아니라, 작고 빈곤한 분이시지는 않은가?

내가 한 가지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말해 주겠다. 나는 구원받은 후 곧 성경을 공부했는데, 유월절 양(羊)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배웠다. 오, 이것을 배웠을 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던가! “주 예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어린양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한 어린양이십니다!” 그러나 어린양과 땅을 비교해 보라. 한 마리의 어린양을 큰 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틀림없이 양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린양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좋다. 너희들이 어린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

에게 어린양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유월절은 바로 그 땅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는 양인가, 땅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수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땅을 소유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일이 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즐겼던 만나도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배웠다. 나는 참으로 즐거웠다. “주님, 당신은 나의 양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린양이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만나이십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만나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아니다. 그 땅이 목적이요, 그 땅이 목표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는지 의문스럽다. 단언하건대, 여러분 자신도 그 점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린양을 유월절로, 또 주님을 매일 매일의 만나로 누린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일 것이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말한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다음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시란 말인가? 그렇다. 그리스도는 땅이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흙이시다. 식물이나 나무는 흙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박는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의 흙이며 땅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염려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인 이 땅에 뿌리박은 하나의 어린 식물이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오륙 년 전만 해도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골로새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골로새서를 읽고 또 읽었지만 결코 이러한 빛을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흙이요, 나의 땅이시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지난 이삼 년 전에야 비로소 내 눈이 열렸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 대부분은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고 깊이

느낀다. 그들은 단지 유월절을 체험하고 주님을 어린양으로 먹었을 뿐이다. 그들은 어린양에 의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는 구출되지 않았다. 몇몇 사람은 이집트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좀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매일 매일의 만나로 누린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양식으로 누리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자랑할지 모른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정말 이것으로 족한가? 그리스도를 매일 매일의 만나로 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다. 우리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날마다 실제로 주님을 그들의 만나로 누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조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활동의 범위요, 영역이시다. 그리스도는 양식이나 음료이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영역이시요, 땅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땅이시요, 우리의 왕국이시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 그림은 아주 분명하다. 이집트에는 어린양이 있었고, 광야에는 만나가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목표이다. 그 땅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 땅이 우리의 분깃이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나,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누려야 한다.

요즈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에 대해 많이 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체험할 수 없다면 교회의 실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과 나는 흙 속에 뿌리를 박은 식물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단지 말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참된 실재로서 소유해야 한다. 흙이 식물에게는 모든 것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뿌리를 박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뿌리를 박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간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은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성전과 도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했다. 교회의 실제적인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한다.

몇 가지 실제적인 예

날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말이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말로서 취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 의미는 이러하다. 여러분이 빛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심을 본다면, 성령은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조차도 그리스도이어야 한다고 깨닫는 데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말에도 십자가의 윤행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의 대화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이다. “주님,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술에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저의 말이 당신에 의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의 말에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깨닫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 보겠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즉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양식이

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이것은 나의 참 양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내가 의지해 살 양식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 양식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 양식을 먹기보다 당신을 먹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휴식하고자 할 때에도 “주님, 당신이 나의 휴식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 휴식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누리며 체험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고 누리며 체험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자매들은 자주 시장에 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믿기에, 그런 생각을 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집회에서는 “할렐루야!”하며 찬송을 불렀지만 잠시 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참 빛을 받았다면 성령은 날마다, 걸음 걸음마다, 실제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원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책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읽겠습니다. 이 책들보다 당신을 더욱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적용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그러한 방법으로 훈련해 보라. 그리스도를 땅으로 취하라.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취하라. 단지 양식뿐만 아니라, 빛이나 거처만이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한 땅으로 취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훈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적용하라.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산출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성 안에 있는 성전,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교회의 건축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제 2 장

좋은 땅의 광대함

성경: 신 12:9, 히 4:8 9, 11, 엡 3:17 19, 빌 3:7 8, 10, 12 14, 출 3:8, 신 4:25.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계획하신 일은 그 땅과 함께 그 위에 건축된 성전과 성을 얻는 것이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고 성은 하나님의 권위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는 그 땅 위에 세워진 성전과 성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구약 전체의 기록을 더욱더 깊이 상고해 보라. 구약 전체는 그 땅과 성전과 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만유를 포함한 예표

이미 우리는 그 땅이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예표, 즉 만유를 포함한 예표라는 것을 보았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표들이 있다.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요, 만나도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모든 기구와 용품과 다양한 제물이 있는 성막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나 이 땅이 없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없는 것이다. 유월절 양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며, 만나도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며, 관련된 모든 것을 갖춘 성막까지도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는 아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제물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그

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을 묘사할 뿐이다. 오직 가나안이라는 그 땅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요, 만유를 포함한 예표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라는 말을 들었다. 만유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는 오직 가나안 땅 뿐이다.

‘만유를 포함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고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들었지만, 이것 또한 만유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양식이요, 생수이시라고 들었지만 이것들 또한 그분을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양식이요, 생수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접촉하고 얻고 누리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다.

우리는 교리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누릴 때마다, 어떤 것을 사용할 때마다 즉시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참된 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가?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요, 표상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실재의 의자이시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일생동안 의자에 앉아보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실재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다. 때로 나는 안경을 쓸 때, “주님, 이것은 참된 안경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의 참된 안경이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저에게 시력조차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길을 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는 길을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층계를 올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참된 층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라는 말을 들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길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걷거나 운전할 때, “주님, 당신이 저의 길이십니다. 당신이 없다면 제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일을 해낼 길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어떠한 사람이 될 길마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길이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나는 여러 차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형제들은 여러 번 내게 와서, “이 형제님, 제 아내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나의 대답은 항상 이러했다. “형제님,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최상의 방법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의 매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언제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나는 그들에게 “형제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아내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해 준다. 때때로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 일을 해 나가는 방법, 또는 아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님, 나는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아내를 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형제님의 영 안에서 주님께로 가십시오. 가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저의 길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모든 것으로 삼기 위해 한 번 더 당신께로 나왔습니다. 저의 아내를 다루는 방법으로 당신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자신이 당신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매들은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오, 형제님! 제게 시간 좀 내 주세요.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자매님, 저는 끝까지 자매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소용없습니다. 자매님이 말하면 할수록, 이것저것에 대해 말하면 할수록 더욱더 곤란에 빠집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다만 무릎을 꿇고 영으로부터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매님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합니다.” 마침내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확신을 갖고 실재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게 와서, “이제야 저는 아내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을 대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매일 매일의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양을 누렸고 사십 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누렸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약간 적용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적은 부분만을 체험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셨고, 그들은 완전히 만족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먹은 것은 그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그들이 마신 것도 그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이 그 땅으로부터 나왔다. 그 땅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 구약의 다른 어떤 예표도 가나안 땅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분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야 한다. 양은 안식이 아니었다. 만나도 안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땅은 안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양을 누렸지만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사십 년간 매일 매일 만

나를 누렸으나 여전히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 안식이란 완전한 것, 충만한 것,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질 때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 유월절 어린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식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좋았지만, 안식은 아니었다. 만나도 역시 어떤 방면에서는 좋았지만 그러나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못되었다. 오직 그 땅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온전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충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땅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 땅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었던 그 땅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안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하신 분으로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구속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길로만 알았다.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땅이 목표요, 표적이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그 땅으로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체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조금 체험했을 뿐이다. 이것이 요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부담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리라고 믿는다.

이 땅의 좋은 점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은 여러 차례 ‘좋은 땅’이라 불렸다. 이 땅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내가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평범한 말이라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다고 항상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좋은 땅 ... 좋은 땅 ...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은 참으

로 좋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 땅이 왜 좋은가? 주님은 그것을 좋은 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좋단 말인가? 과거에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좋은 땅으로 알았고, 좋은 이유는 묻지 않았다.

이 땅의 좋은 면을 완전히 밝혀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가장 먼저 나는 이 땅이 다소 특별하게 좋은 면을 지적해 보겠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읽은 바 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려와서 …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좋은 땅, 광대한 땅 …에 이르러 하노라”고 말한다. 이 땅은 광대하다. 이 땅은 좋고 광대한 땅이다. 이 땅은 무엇보다도 광대하다는 점에서 좋다.

광대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의 광대함을 묘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넓이가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떤 분량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분량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리스도의 분량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다. 여러분은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또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무한합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너비는 우주의 너비이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너비요, 길이요, 높이요, 깊이이시다. 우주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가 곧 그리스도의 한계일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크기를 결코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땅이 좋은 첫째 이유이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무한하다는 면에서 좋다.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적용함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님, 제 가족을 아시지요? 우리 형제님(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

람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지요.”라고 나는 대답했다. “제게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과 이제 또 한 아기가 태어나면 여섯이 될 거라는 사실도 아시죠? 전 아직 젊어요. 저는 여섯째 아기를 낳은 후에도 또 아이가 있게 될까 두려워요. 형제님, 전 이런 상황이 걱정스러워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자매님,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형제님,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가 받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자매는 “형제님, 주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제는 잘 알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의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자매님의 체험을 듣고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 제게 말해 주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녀는 “오, 그것은 주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자매님, 자매님은 주님께서 아주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자매님이 남편과 다섯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도와주셨다면, 자매님에게 한두 명의 자녀가 더 생긴다고 해서 주님께서 자매님을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작고, 그렇게 제한된 분이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녀는 이해하며, “물론,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무한하십니다!”라고 소리쳤다. 나는 “자매님, 됐습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안심하고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 버리십시오. 주님을 자매님의 무한한 도움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해 주었다.

또 한번은 어떤 형제가 내게 와서 “형제님, 제 아내는 이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벅찰 것입니다. 저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답변했다. “형제님,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지내올 수 있었

습니까?” 그는 “오, 그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었죠!”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형제님, 주님의 한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형제님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크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면, 더 나쁜 상태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오, 그게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상태도 충분히 나쁩니다. 저는 바로 지금 주님께 이 상태를 멈추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만일 이것으로 족하다면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형제님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더 나쁜 상황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에 의해’ 그리스도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의 체험에 의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분의 광대함은 무한하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분이시다.

우리의 선(善)과 그리스도의 선의 차이

어느 날 한 형제가 내게 와서, “우리의 인내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의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형제님, 제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이 저의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무한할 것이고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신에게서 나온 사랑이라면 틀림없이 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일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이런 일에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저런 일에서도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루를 사랑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사랑하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고갈될 것입니다.”

인간의 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인내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참는다면 잘못된 대우를 받을수록 더 참을 것이다. 이러한 인내는 결코 한계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무한함에 있어서, 그분의 광대함에 있어서 좋다. 그분께 속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들 대부분이 부부간의 문제를 경험했거나 보았을 것이다. 때로 나는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오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그의 사랑은 고갈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다.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한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 자신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오늘 아내를 사랑한 만큼 틀림없이 다른 날에는 그만큼 아내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그것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 자신입니다. 나는 당신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한 당신을 통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그리스도의 너비요, 길이요, 높이요, 깊이입니다.”

그 땅은 좋다. 그 땅은 광대하기 때문에 좋다. 그리스도에게는 한계가 없다. 오! 형제들이여, 나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나에게서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났다. 주님의 일, 교회들, 그리고 동역자들이라는 짐이 항상 무거워져 갔고 문제들은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짐,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과 고난들이 날마다 늘어갔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짐이 늘어감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나는 아주 큰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가로 세로가 각각 삼십

센티미터는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손수건은 오직 그만큼만 덮을 수 있다. 결코 방 전체를 다 덮을 수는 없다. 그것은 충분히 크지 못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한계가 없는 천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알 수 없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지 다 덮을 수 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덮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무한하심에 있어서 좋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좋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광대한 땅이시다.

제 3 장 좋은 땅의 높음

성경: 신 32:13, 겔 20:40 42, 34:13 15, 37:22, 행 2:32 33, 엡 2:6, 골 3:1, 빌 3:10.

우리는 그 땅이 광대한 점에서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땅은 광대하므로 좋다. 우리는 그 땅이 좋다는 것에 대해 더욱더 보아야 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땅에 높은 곳들이 있다고 말해 준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신 32:13). 그러므로 이 땅은 높기 때문에 또한 좋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이 고지(高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해발 육백 미터에서 천이백 미터나 된다. 가나안은 산들의 땅이다. 신명기와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땅이 산이 많고 지대가 높은 곳이라고 말해 주는 여러 구절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 대한 예표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지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나안 땅의 한 면에는 큰 바다인 지중해가 있고, 다른 면에는 또 다른 바다인 사해가 있다. 이렇게 이 땅의 양면에 바다가 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둘러싼 것은 오직 사망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망으로부터 무언가가 솟아올라 있다. 바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고지, 즉 산 위의 땅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고 하늘로 높이 지셨다. 그분은 부활하여 높이 승천한 분이시다. 그분은 높은 산이시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높은 땅이시다. 그분 옆에, 그분 밖에는 사망만 있을 뿐이다.

오순절 날이 왔을 때,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 있었다. 그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한 어부, 한 작은 사람, 걸으로 볼 때 작고 초라한 사람인 베드로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섰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사람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높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여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서 있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도행전의 처음 몇 장을 읽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했다. 대제사장, 왕들, 백성의 통치자들이 모두 그들의 발밑에 있었다. 그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높은 지위를 능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었다. 그들은 이 높은 산 위에서, 이 높은 땅에서 살고 있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그리스도는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보다 더 높이 계신다. 그분은 뛰어난 분이시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체험했다고 믿는다. 이 체험은 무엇인가? 내 체험을 좀 이야기해 보겠다.

1943년, 나는 주님의 일로 인하여 일본 헌병에 의해 투옥되었다. 그 당시 일본군은 중국 본토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는데 내가 일하고 있던 도시는 그들의 점령하에 있었다. 감옥에 갇힌 동안, 나는 거의 날마다 오전에는 아홉 시에서 열두 시까지, 오후에는 두 시 삼십 분에서 여섯

시까지 그들 앞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 외에는 내게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움 받을 길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독방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늘에 있었다. 내가 관리들 앞에 심문을 받으러 끌려 나갔을 때,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 아래 있지 않고 그들 위에 있었다. 왜 그런가? 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감옥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것이 되셨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그들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하늘에 살고 있었다.

삼 주 동안 나를 이런 식으로 다룬 후, 그들은 내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판결은 내가 미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선생, 당신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군.”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조롱하려고 감옥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과 나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한지 말해 보시오.”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들의 술책을 알아차렸다. 만일 나라가 더 중대하다고 말했다면 나를 더 이상 미신적인 사람이라 판단하지 않고 애국자라고 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애국자인지 아닌지, 내가 나라를 염려하는지 안하는지 알아내려는 의도였다. 나는 주저했다. 그들은 “빨리빨리 말하십시오.”라고 재촉했다. 그들이 “빨리”라고 말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망설였다.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내게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들은 “좋소!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빵을 갖다 주게 하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겠소.”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 다른 위협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웃고는 감옥으로 돌아갔다.

바로 뒤에 한 그리스 청년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헌병은 그 청년이 그 도시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 같지도 않아 우리 둘을 조그만 감옥에 함께 두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음식을 분배하는 일본 군인이 우리 감옥으로 왔다.

중국말을 하지 못하는 일본 군인은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나를 놀려댔다. 그것은 곧, 그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그리스 청년에게 약간의 빵을 건네주고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나 버렸다. 그가 나간 후에 그리스 청년은 나와 이야기하며 나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오, 이 선생님,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잡수십시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억지로 빵을 먹게 하고 우유를 마시게 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또다시 나를 놀리려고 감옥에서 불러내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음식을 갖다 주셨소?”, “그렇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미신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러더니 “좋소, 우리가 이발사를 데려와서 이발을 시켜 주고 식당에서 가져온 좋은 음식을 주겠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체험인지 아는가? 이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우리는 승천하신 분 안에 있다.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도 또한 높아진다. 우리도 초월하게 되며 모든 것이 우리의 발아래 있게 된다.

나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곧 결핵을 심하게 앓게 되었다. 나는 여섯 달 동안 꿈쩍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2년 반 동안이나 활동을 제한받았다. 외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참으로 어두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침대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나는 극심하게 아팠지만, 기도할 때 내가 병중에 있지 않고 훨씬 더 높은 하늘에 있다고 느꼈다. 그 당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투옥과 핍박, 빈곤과 질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승천하신 주님이 나의 길이셨다! 초월하신 주님이 하늘에 이르는 나의 길이셨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는가? 다만 그리스

도 안에 있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 우주의 높은 산이시다. 그분은 높은 땅이시다. 여러분 대부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나는 젊었을 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왔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나보다 연장한 두세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주님께 매우 감사한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위치만 니 형제님이었다. 나는 그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한 자매님과 교통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말해 주었다. 약 삼십 년 전, 내가 청년이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나는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체험적으로는 부활과 승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 자매님은 나에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많이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이 형제님, 어느 날 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 압박과 고통과 곤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배웠던 것이다. 아무것도 그녀를 억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해방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더욱 심한 고통이 그녀에게 일어났다. 그녀는 또다시 주님께로 가서 “주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 보았다. 주님은 다시 “그것은 다만 너로 내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

오, 내가 그녀의 간증을 듣고 있을 때, 나는 우리 둘 다 하늘에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하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하늘에 함께 있었다. 이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발밑에 두었다. 아무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함

때로 여러분은 “아, 기운이 없네!”라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망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또는 마음속에서 억눌림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사망의 위협 아래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환경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은 즉시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말해야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고하며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을 접촉할 때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접촉하는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접촉할 때 여러분은 골짜기에 있지 않고 높은 산 위에 있게 될 것이다.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고지에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여러분이 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 여러분은 그분을 적용하지도 않고, 그분께 오지도 않고, 그분을 접촉하지도 않는다.

많은 때 형제들은 괴로움으로 생각이 꼭 찬 채로 나를 찾아온다. 한번은 이런 상황에 처한 형제가 나에게 왔다. 그와 잠시 이야기한 후에 “형제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는 “이 형제님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때때로 여러분이 이 형제와 똑같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 여러분이 그런 형제와 대면한다면 참으로 힘이 필요하다. 때로는 여러분은 그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그에 의해 약하게 되어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서 “형제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길이 없다. 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영을 사용하고 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주님, 당신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이런 환경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적을 묶으십시오. 강한 자를 묶으십시오. 이 형제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

십시오. 그를 기도하게 만드십시오.”라고 나는 말한다. 우리에게는 싸우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기 위해 그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영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은 그들을 하늘에 이르도록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에 의해서 해방되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방법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대적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 그때 대적은 여러분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억눌림 당하고 사탄의 발밑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사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에스겔 3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산들 위의 높은 땅에서 주의 백성은 시냇물을 즐겼다. 그 시냇물은 성령의 흐름, 즉 성령의 생수를 나타낸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흐르는 생수의 흐름을 느낄 것이다. 때로 여러분은 마음과 영이 메마름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다만 여러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상황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영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즉시 여러분 속에 있는 살아 있는 흐름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또 높은 산 위에서 주의 백성이 좋은 꼴, 살진 꼴로 먹으리라는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생명의 그리스도이다. 풀이란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여러분은 만족될 것이다.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분으로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즉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진 꼴을 풍성히 맛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높은 땅에는 무리와 함께 누울 곳이 있다. 이것이 안식이다. 당신에게는 안식이 없는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을 적용하라.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안식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실 것이며, 살진 꼴을 먹게 될 것이며, 누울 수 있는 좋은 우리를 갖게 될 것이다. 신선한 음료를 마실 것이고, 양분이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며 또한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될 것이다. 모든 환경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가장 실제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체험할 것이다.

더욱이 이스라엘 산들 위의 높은 땅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달콤한 향기로 받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서 계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흠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겔 20:40-42).

이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후 우리는 주님께 바쳐질 것이고 그분과 좋은 교통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

하는 데 달려 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

여러 차례 나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서 받아왔다. “형제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매우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의 수고로움마저도 안식의 침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면 할수록 더욱 더 주님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주님을 위한 일이 짐이 된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침상 삼아 그 위에 눕겠노라고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신 일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안식이다. 여러분은 일할수록 더 안식하게 된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로 인해 차이가 생긴다. 그분 안에서 섬기는 것은 참으로 안식이다.

1958년, 나는 덴마크에 가서 전 시간을 드려 일하는 한 형제를 만난 일이 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그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그는 내게 와서, “이 형제님, 걱정이 많으십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형제님, 왜 그렇게 물으시지요?”라고 했더니, 그는 “저는 형제님이 큰 짐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극동에서 주님의 일을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매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틀림없이 그 일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이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형제님, 제 얼굴을 보십시오. 걱정스러워 보입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그것이 바로 제가 찾아온 이유입니다. 저는 형제님이 많은 짐과 고통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염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제가 형제님의 얼굴을 볼 때 도대체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형제님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저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염려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높은 땅이시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나는 이 높은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짐은 다 내 발아래 있다. 그들은 나의 좌석이 되었다. 나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쉴 수 있다. 나는 고통스러울수록 그만큼 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역시 지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은 그분을 쉽사리 잊어버린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시키지도 않는다. 나를 어떤 특별한 인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같이 평범하고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이 있다. 나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기 저에게 당신을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의 상황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늘로 승천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그분은 어떠한 구주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이신가! 어떠한 구원이며 어떠한 해방인가!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정도로까지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광대한 그리스도이시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제 4 장 좋은 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 물

성경: 신 8:7, 11:11 12, 엡 3:8, 요 4:14, 7:37 39, 고후 6:8 10, 빌 4:12 13.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땅을 보고자 한다. 그 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우리는 그 땅이 광대하고 높다는 점에서 좋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가장 큰 관심사인 그 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이르렀다. 그 땅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점에서 좋다. 그 땅은 광대하다는 점에서 좋고, 높다는 점에서 좋고, 또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점에서 좋다.

첫째, 그 땅에는 물이 많다. 그 땅은 물이 많아서 좋다.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 먹지 않고는 여러 날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거의 단 하루도 지낼 수 없다.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물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나에게 마실 물만 준다면 지라도 삼일 동안은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시는 것은 단 하루도 중단할 수 없다.

샘, 분천, 시내

신명기는 그 땅의 물이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에 사용된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는 시내로 가득한 땅을 의미하는

‘시내의 땅’이며, 다른 하나는 ‘분천과 샘의 땅’ (신 8:7)이다. 여러분은 분천과 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비(J. N. Darby)가 번역한 성경에는 ‘샘과 깊은 물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다. 우리에게 하나의 우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물에는 언제나 샘이 있다. 밑바닥, 즉 우물 바닥에는 그 우물을 물로 채워주는 샘이 있게 마련이다. 물은 그 샘으로부터 나와 우물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 우물은 ‘분천’, 즉 ‘깊은 물’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깊은 물로부터 시내가 흘러나간다. 먼저 샘이 있고, 그 다음에 분천인 깊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내가 있다.

샘, 깊은 물, 그리고 시내. 형제자매들이여, 이러한 여러 종류의 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즉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여러 종류의 물은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의 다양한 방면의 예표들이다. 우리의 공급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과 같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는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이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한 면으로 그리스도는 대단히 광대하고 다함이 없으시며, 다른 면으로는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자신의 체험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생수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때 여러분은 목이 말랐다. 물질적인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이다. 여러분이 목말라 주님께 와서 그분을 접촉할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다. 여러분 속이 신선해지고 적셔진다는 느낌을 갖는다. 여러분이 목마를 때, 그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인 여러분의 영이 메마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를 접촉할 때 바로 물로 적셔지고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갈된다. 여러분은 어떤 물질적인 음료에 의해서보다도 이러한 음료에 의해 더욱 신선하게 된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접촉하고, 심지어 순간순간 접촉한다면 여러분은 물로 적셔지는 그 이상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 볼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메마르고 목마를 때 주님께 와서 그분을 접촉하면 소생된다. 여러분이 그분을 계속 접촉하면 적셔질 뿐 아니라, 가득 채워지고 물로 충만된다. 그럴 때 형제를 만나게 되면 즉시,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녁에 집회에 올 때 찬송을 부르며 올 것이며 생생하게 살아서 올 것이다. 여러분은 즉시 찬양이나 기도를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시내와 같을 것이다. 모든 형제자매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적셔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형제자매들에게, “형제들이여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시내일 뿐입니다. 형제님들, 내 안에 샘이 있고, 샘뿐 아니라 깊은 물의 분천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흘러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시내가 있다. 샘은 근원이요, 분천은 저장소요, 시내는 흘러나옴이다. 우리에게는 근원이 있고, 저장소가 있고, 흘러나옴이 있다. 즉 샘과 분천과 시내가 있다.

나는 여러분도 이것에 대한 체험을 조금 가지고 있으리라 믿지만,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그것을 말해낼 수 없고, 이 살아 있는 샘과 깊은 분천과 흐르는 시내에 관하여 적합한 찬양을 할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 참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 속에는 하나의 샘이 있습니다! 또 이 샘으로부터 깊은 물, 분천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서 샘과 분천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천으로부터 시내가 흐릅니다. 하나의 시내뿐만 아니라 많은 시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저를 적셔 주는지요! 저는 너무나 신선해졌습니다! 생명의 시내가 언제나 제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적셔 주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의 시내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시내가 있다. 단 하나

의 샘과 분천이 아니라 많은 샘과 많은 분천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때로 여러분이 고통과 시험으로 에워싸여 있을 때 주님을 접촉하면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 여러분은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을 샘으로, 분천으로, 시내로 체험한다. 이것은 어떠한 샘이며, 어떠한 분천이며, 어떠한 시내인가?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많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쁨의 샘으로, 때로는 평강의 샘으로, 때로는 위로의 샘으로 체험한다. 때로는 사랑의 분천으로, 은혜의 분천으로, 빛의 분천으로 주님을 체험한다. 또 다른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내시요, 겸손의 시내시요, 관용의 시내시다. 여러분이 보았듯이, 많은 샘들이 있고 분천들이 있고 많은 시내들이 있다. 하늘로서 오는 여러 종류의 공급이 있다.

1950년 이래로 나는 거의 매년 마닐라를 방문해서 그곳에 이삼 개월 씩 머물렀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은 언제나 나를 한 가정에서 묵도록 해 주었는데 그 식구들은 모두 연장한 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청년들보다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자연스러워했다. 1953년 어느 날, 말씀을 전한 후 우리는 집회소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한 연장한 자매님은 내게, “형제님,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형제님께서 1950년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음에 오실 때에는 말씀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두 번째 오셨을 때에는 말씀이 더 풍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실 때에는 말씀의 재료가 거의 다 떨어질 거야. 말씀하실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오셨을 때에는 처음 두 번 보다 말씀이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신데, 오늘 저녁 말씀을 들어보니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다할 수 없군요.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으시는지 알려 주시겠어요?”라고 물었다.

내가 자매님에게 어떻게 답변해 드렸는지 아는가? 나는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는 하늘에 있는 샘과 연결된 시내가 있습니다. 이 샘은 결코 마를 수 없습니다. 생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신선한 공급은 더욱더 흘러나옵니다. 제가 말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많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멈춘다면 흘러

나오는 것도 멈춥니다. 이 시내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형제가 내게 와서 묻기를, “형제님,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 형제님은 아무 원고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형제님, 나는 대단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의 시내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흘러갑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또 “형제님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기에, “형제님, 저도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삼십 년 이상 동안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한 번 전한 말씀을 반복하기가 더 어렵지요.”라고 대답했다. 하나의 시내, 즉 사역의 시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시내들 중에 단 하나일 뿐이다. 지혜의 시내도 있고, 이해의 시내, 빛의 시내, 사랑의 시내, 위로의 시내, 평강의 시내, 기쁨의 시내, 기도의 시내, 찬양의 시내도 있다.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시내들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시내들이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각 시내의 분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접촉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시내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인내는 언제나 시내처럼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흠뻑 적셔 줄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근원이 있는가! 한 면으로 그분은 광대한 분이시다. 또 한 면으로 그분은 초월한 분이시다. 이제 그분은 물처럼 풍성한 분이시다.

골짜기와 산

신명기를 볼 때 이 물은 골짜기와 산에서부터 흐르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골짜기와 산이 없다면 물은 결코 흐르지 못할 것이다. 모든 땅이 평평하다면 물은 결코 흐르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와 산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대조되는 많은 것들, 즉 많은 산과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광은 산이다. 욕된 것은 골짜기이다. 악한 이름은 골짜기이며, 아름다운 이름은 산이다. 근심은 골짜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산이다. 가난한 것은 또 하나의 골짜기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은 다만 산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법이다. 이 구절에는 적어도 아홉 개의 짝, 즉 아홉 개의 골짜기와 아홉 개의 산이 있다. 이것들이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산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즉 여러분의 생활이 평범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속에는 아무런 물도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더욱 더 많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낮추어지면 질수록, 여러분에 대한 악한 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은 더욱더 많이 흐를 것이다.

과거에 여러 차례 나에 관한 악한 소문이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여러 번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형제님,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그것은 악한 소문이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기 또 다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더욱 많이 흘러나가기 위한 골짜기가 있습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몇 가지 좋은 별명을 받았다. 우습게도 어떤 것에 대해 “가장 강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불렸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다. 온갖 종류의 악한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골짜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산이 있다. 이것은 확실하다. 나는 악한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한 이름 뒤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생명의 물은 골짜기와 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실 때마다 그 다음에는 기쁨이 따

라울 것이라고 확신하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이 다 골짜기요, 산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빌 4:12)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는 비결을 알았다. 그는 부하게 되는 법과 가난하게 되는 법을 알았다. 그 비결이란 무엇인가? 오, 비결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것이다! 나는 이 비결을 배웠고, 이 비결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이 비결을 전수 받았다. 나는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골짜기는 십자가의 체험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이다. 또한 모든 산은 주님의 부활의 체험이다. 골짜기는 십자가이다. 산은 부활이다. 우리는 항상 어떤 고통, 즉 골짜기를 체험할 뿐 아니라 언제나 산, 즉 부활을 체험해야 한다. 골짜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산이 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누릴 때마다 부활도 누릴 것이다. 생수는 이 모든 체험들로부터 흘러나온다.

신명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더욱 상고해 보자. 그 구절은 물이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 흐르고”라고 되어 있다. ‘산에서든지 골짜기에서든지’라고 하지 않고 ‘골짜기에서든지 산에서든지’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는 골짜기요, 그 다음이 산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흐르는 물을 접촉하는 첫째 장소는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내를 그 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시내가 산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시내는 골짜기에 있지만, 샘은 산에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물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흘러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골짜기에 있어야 한다.

나는 젊었을 때 들은 한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나를 크게 도와주었다. 주님의 종들 중에 한 분의 아내가 아주 젊었을 때 여덟 명의 자녀를 남겨 두고 죽었다. 그도 역시 매우 젊었으므로 이 시련은 그에게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 되었다. 그는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몇 년 후 어느 날, 한 형제가 그의 아내를 잃게 되었는데, 역시 돌봐야 할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이 형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 때문에 극히 쇠약해져 있었다. 그때 주님의 종이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약해져 있던 그 형제는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님,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형제님은 아내를 잃었을 때 아이들이 여덟이나 되셨지요. 저도 역시 아내를 잃었지만 아이들은 네 명밖에 안 되는 걸요. 저를 소생시키고 위로해 주는 어떤 것이 형제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과 시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내보낼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을 적셔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평화롭거나 행복한 때에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없다. 그것은 슬픈 날들 속에서, 병든 나날 속에서, 고통의 나날 속에서 체험된다.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사람들을 적실 수 있는 살아 있는 흐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모든 죽음의 상황은 소생하게 하는 물을 많이 흘러 내보낼 수 있다. 산뿐만 아니라 골짜기를 체험해야 하고, 골짜기뿐만 아니라 산 역시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많이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샘과 분천과 시내로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달콤한 말씀 구절들이다.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와 샘과 깊은 물이 있는 땅, 즉 좋은 땅이 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온갖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도록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적시기 위해 흘러보낼 무언가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것은 좋은 땅의 풍성 중의 한 항목일 뿐이다. 그 땅은 물이 풍성하여 좋다.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와 샘과 깊은 물이 있기 때문에 좋다.

주님의 눈

이 모든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골짜기와 산은 어디에서부터 물을 얻는가?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은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말한다. 산과 골짜기는 근원이 아니다. 근원은 하늘이다. 모든 생수와 모든 시내는 하늘로부터 온다. 근원은 하늘에 있다. 그것이 왜 하늘로부터 오는가? 동일한 구절에서 우리는 이 땅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땅이라는 것을 읽게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니(찾으시는, 히브리 원문 참조) 땅이라.”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찾고 계신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여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일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고정된 하나님의 눈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수로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좋은 땅이다. 여러분은 이 좋은 땅 안에 살면서 그 땅의 풍성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눈을 내게서 돌려 버린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수로 누리기 때문이며, 좋은 땅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땅에는 물이 풍성하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와 샘과 깊은 물의 땅이다.

제 5 장

좋은 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Ⅱ. 양식(상)

성경: 신 8:8 10, 32:13 14, 민 13:23, 27, 14:7 8, 사 9:9, 11, 13, 슥 4:11, 14, 호 14:6 7, 요 12:24, 6:9, 13, 15:5.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많은 예표가 있지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는 오직 하나, 가나안 땅뿐이다. 이 땅은 자주 좋은 땅으로 언급되어 있다. 주님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 부르셨으며 한번은 지극히 좋은 땅이라고 일컬으셨다. 우리는 그 땅이 광대함과 높음과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함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땅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여러 종류의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마실 것은 언제나 먹을 것을 수반한다. 내가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마실 것을 줄 뿐 아니라, 또한 먹을 것도 줄 것이다. 음식과 음료는 항상 함께 있게 마련이다.

이제 여러분은 신명기 8장이 왜 그러한 순서로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먼저 몇 가지 종류의 물, 즉 샘과 분천과 시내를 말한다. 물은 샘의 단계, 분천의 단계, 시내의 단계와 같이 그 단계에 있어서 다를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샘과 분천과 시내에 있어서도

다르다.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살펴본 바 있다. 신명기는 그 땅의 물에 대해 말한 후 즉시 음식에 대하여 말한다.

일곱 가지 양식

양식의 문제는 훨씬 더 상세하다. 8절을 보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식물계에 속하는 여섯 가지 항목이 있고, 아주 특별한 일곱째 항목인 꿀이 있다. 꿀은 부분적으로는 동물계에 속한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는 식물계에 속한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벌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즉 두 계(界)의 연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항목들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등이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곡식과 네 종류의 나무와 마지막으로 꿀이 있다. 첫째 나무인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생산하고 마지막 나무인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와 기름을 갖게 된다. 둘째 나무는 무화과를 산출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무화과를 식량으로 삼는다. 셋째 나무인 석류나무는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연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나무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와 두 가지 곡식인 밀, 보리를 갖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밀의 의미를 알려주는 구절을 찾기는 매우 쉽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주님 자신이 밀알이라고 말하고 있다. 밀은 분명히 주님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면 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포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분이 바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 자신이다. 감람나무 또한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것들 밀,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들을 상징하는가? 이 문제를 좀더 주의 깊게 상고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밀과 보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주님은 보리나 포도를 앞에 두지 않고 밀을 맨 앞에 두셨다. 밀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나타내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죽고 장사되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밀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고 장사되기 위하여 육체를 입음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밀이다. 밀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밀은 주님의 육체 됨과 죽음과 장사됨을 가리키고, 밀 다음에 나오는 보리는 그분의 부활,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에서 보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익는다. 모든 곡식 중에서 보리가 첫째이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추수 때가 왔을 때 그 추수한 첫 곡식은 주님께 드려져야 했다. 그 첫 곡식이란 분명히 보리였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성경 연구가는 추수한 첫 곡식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보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밀은 육체가 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두 가지 곡식은 그리스도의 두 방면,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밀과 보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각각 나타낸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문제에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또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체험이 밀이고 어떤 체험이 보리인가?

예수께서는 오천 명을 다섯 개의 보리떡으로 먹이셨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떡 다섯 개의 기적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떡이 보리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이 말씀은 정말로 놀랍다. 그것이 밀떡이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이 아닌 보리떡이었다. 보리떡으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다. 이것이 부활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실 수 있다. 그분은 육체를 입음으로 지극히 제한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매우 풍성하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한이 없으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을 때 그분은 단 하나의 밀알이셨고, 한 작은 나사렛 사람이셨으며, 한 비천한 목수이셨다.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더 이상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다. 다섯 개의 떡이 있었지만 사실상 셀 수 없는 떡이 있었던 것이다.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지 않은 오천 명을 먹이기에 충분했으며, 남은 것만도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여 본래의 다섯 개보다 더 많았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부활 안의 그리스도는 결코 제한되실 수 없다.

밀의 체험

나의 목적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부담은 그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바는 밀을 체험하는 것이요, 보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밀의 체험을 생각해 보자.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제한받고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마다 밀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제한받고 억압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과 같으시다. 그분을 접촉하자마자 즉시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 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인 그 생명은 하나의 밀알이다. 그것은 작은 목수, 육체를 입으신 분, 제한되신 분의 생명이다. 여러분이 제한되고 억눌림 당하는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접촉했을 때, “오, 주님!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떠한 제한도 감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밀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아주 좋은 한 자매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 자매는 부자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한 형제와 결혼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상냥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전혀 달랐다. 이 젊은 자매는 자신의 체험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하고 싶어 나를 찾아왔다. 그때 그녀는 시어머니로부터 매일 매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털어 놓았다. 그 자매는 주님께 가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자매는 주님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시도록 감히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간청했다. 그녀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즉시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사람이셨는지를 보여 주기 시작하셨다고 그녀는 말했다. 주님은 그녀에게 주님께서 삼십 년 이상이나 그 작은 가정에서 하나의 목수로서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으셨는지를 보여 주셨다. 그 자매는 마음속에서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꿔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울며 외쳤다. 그 자매는 나에게 그녀의 체험이 옳은지 어떤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정말로 옳다고 말해주었다. 이 자매는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영적인 자매였다.

얼마 후 그 자매가 또 나에게 왔다. 이번에는,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 가족의 제한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 속한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땅에 묻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계시하셨을 때, 저는 이런 가정 상황에서 지내는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 가정 안에서 죽고 장사되겠노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많은 환경 속에서 마치 한 알의 밀과 같으시다. 우리가 그분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분이 한 알의 밀알이시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제한받고, 기꺼이 죽고, 기꺼이 장사되고,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생명이시다. 이것이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나, 혹은 남편과 다투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는 끝난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풍성히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생수로 누릴 뿐 아니라 밀알로서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토록 제한받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분이 제한받고 죽음에 들어가 장사되신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죽음에 들어가 장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탱해 주실 것이다. 그런 한계까지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을 한 알의 밀로 누리게 될 것이다.

보리의 체험

그러나 이것이 끝인가? 아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밀 다음에는 보리가 있다. 무덤은 주님의 종말이 아니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밀 다음에 보리가 왔다! 밀은 죽음의 골짜기이다. 그러나 보리는 부활의 산이다. 여러분이 밀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보리이신 그리스도의 체험이 뒤따를 것을 확신하라.

실제로 밀알, 즉 제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보리,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육체 됨과 십자가에 죽음과 장사됨의 과정을 거친 생명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날 그분 자신은 부활한 분이시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제한을 받으셨지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제한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해방된 분이시다. 우리가 제한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는 제한 받으신 예수를 따르고 있으나,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따른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가, 제한받으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가?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육체에 의해, 그분의 가족에 의해, 육신의 어머니에 의해, 육신의 형제들에 의해서까지도 항상 제한을 받으셨다. 그분은 항상 제한을 받으셨다. 공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으셨고, 시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에 의해 제한을 받으셨다. 우리가 만일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또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우리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참으로 강해야 한다. 화를 내기는 쉽다. 그러나 인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성질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하늘에 속한 힘이 필요하다. 우리를 제한받게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 능력이다. 나는 조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데에도 내 안에 살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내로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나에게, “형제님, 저는 항상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들, 나의 상관, 형제들, 특별히 어떤 한 형제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의해 제한을 받고, 또 저것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온종일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래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떡 다섯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단 하나의 떡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리떡이요, 결코 제한되실 수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약간만으로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다. 당신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여러분’ 확실히 대처할 수 없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

신다. 보리이신 그분이 계신다. 하나의 보리떡이 여러분 안에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작은 부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것으로 족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제한이 없다. '주님을' 그 상황에 적용하라. 그분은 결코 고갈될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한받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때때로 어떤 형제는 말한다. "저는 일어서서 간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것은 오천 명을 먹여야 하지만 보리떡 다섯 개 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대단히 적어 보이고, 필요는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은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에 의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고, 어떤 한계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적용하라!

어떤 형제가 당신을 만나러 올 때 그리스도께서 보리로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이 형제와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을 적용해야 한다. 때때로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여러분은 형제를 만날 때 월남에 대해서 말하고, 세계정세에 대해 말하고, 날씨에 대해서 말한다. 날씨는 기억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쉽게 잊어버린다. 여러분은 그 형제와 교통할 때 그리스도를 적용하기를 실패한다. 그가 떠날 때 여러분은 배고픔을 느끼며, 배고픔뿐 아니라 아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생긴 아픔 을 느낀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를 적용할 기회로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적용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집회에 올 때 찬양을 하거나 간증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다. 주님께 드릴 많은 보리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번은 워치만 니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젊은 동역자들은 집회에 올 때 앞선 형제님들이 집회에 계신지 알아보느라고 두리번거린다. 만일 안 계시다면, 또 모든 참석자들이 새로운 신자들뿐이라면 그들은 담대히 기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나 그 집회에 몇몇 앞선 형제님들이 앉아계신 것을 보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만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에게도 부활한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에게도 계십니다. 바울 형제님은 오백 개의 떡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한 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다. 그분은 보리떡, 즉 부활한 분이시다. 어떤 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다.

여러분은 집회에 올 때 여러분의 책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집회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다. 여러분은 “저는 너무나 약한 걸요.”라고 말한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하지 않다. 여러분은 “저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은 또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보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집회에 올 때 여러분은 기도나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보리떡이신 주님을 사용하라. 이것을 시도해 보라. 이것을 실행해 보라.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원래 여러분은 떡 한 개만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백 개의 떡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실행함으로써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회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결코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집회는 끝장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적용하기를 배워야 하고,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보리떡이 있는 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있는 한, 그것

으로 충분하다. 그 떡은 그 상황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내 말을 받아들인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적용하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보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주님께 “주님, 저는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라.

가족 가운데서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 자매는 대략 오륙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의 체험을 간증했다. 이번에는 보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그 자매는 시어머니와 많은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간증했다. 그 자매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하나의 보리떡이 되었던 것이다. 그 자매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여러분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로서 알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에 의해 여러분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고 하나의 보리떡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에 의해서 공급을 받게 되었다. 그 자매가 집회에 올 때마다, 모든 형제자매들은 그 자매가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공급, 즉 생명의 사역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기도할 때 모든 영과 마음이 만족되었다. 그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먹이는 보리떡이 되었다. 그 자매는 밀이 되시고 보리가 되신 주님을 체험하여 그녀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고 하나의 보리떡이 되었던 것이다.

포도나무

이제 나무에 관한 것을 보자. 첫째 나무는 포도나무이다. 포도는 무

엇을 상징하는가? 사사기 9장 13절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라고 말한다. 한 면으로 그것은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중점이 아니다. 주된 의미는, 주님께서 그분의 희생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새 포도주를 생산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우리 중의 대부분이 이러한 체험을 조금은 가지고 있을 줄로 믿는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그다지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때때로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접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누릴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포도나무가 된다. 즉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에게는 여러 방면이 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풍성하시다. 주님은 밀알이시요, 보리떡이실 뿐 아니라 모든 나무이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기쁨을 산출하는 나무이시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런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은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희생하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힘을 주고 계신다.

수년 전에 내가 대만의 타이베이시(臺北市)에 있었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들 중에 한 자매는 항상 원망하며, 항상 불평을 늘어놓았다. 목욕을 할 때에는 물이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불평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 너무나 식었다고 불평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이렇지?”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 자매는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

문이었다. 그녀 자신도 행복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했다. 그 자매에게는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포도주 생산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많이 갖게 되고 또 그 포도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미칠 것이다. 여러분은 취해서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는 이기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게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비참하다. 그들은 항상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조금만 더 잘 대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항상 구걸하는 거지와 똑같다.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희생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희생의 생명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적인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희생하도록 격려하며 강권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행복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에 의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포도가 술이 되려면 포도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포도는 눌러져야 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눌러져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리,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대처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한다. 여러분은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쉽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말라. 왜냐하면 보리 다음에는 즉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눌러져야 한다. 여러분도 역시 눌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이 눌러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부서져야 한다.

순서를 잘 보라. 첫째는 밀이요, 그 다음에 보리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이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증명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들을 교리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스도를 여러 방향으로 깨닫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적용하라.

제 6 장

좋은 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II. 양식(하)

성경: 신 8:7 8, 7:13, 32:13 14, 사 9:9, 11, 13, 겔 34:29, 민 13:23, 27, 속 4:12 14.

우리는 가나안 좋은 땅에 있는 세 가지 양식, 즉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를 보았다. 다시 그 순서를 주의해 보자. 첫째는 밀이요, 그 다음에는 보리요, 그 다음은 포도나무이다. 육체를 입고 제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체험이 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사셨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육체가 되시고 제한받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포도주 짜는 통 속에 넣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해 짓눌릴 것이다. 우리의 체험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한다.

무화과나무

이제 우리는 넷째 항목인 무화과나무에 왔다. 사사기 9장 11절에서 무화과나무는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의 공급 되

시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말한다. 첫째 항목인 밑에서는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볼 수 없다. 보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포도나무에서도 그 강조점은 우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에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얻기 위해서는 넷째 항목인 무화과나무에 와야 한다.

우리의 체험으로 보건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로, 보리로, 또 포도나무로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더욱더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짓눌릴 것이며 더욱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공급되시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깨닫게 된다.

약 삼십 년 전, 중국 북부의 강서지방에 사는 한 젊은 여인이 병에 걸렸다. 그때는 기근이 심했던 때라 그녀도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질병 중에 주님께 인도되었는데 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빨리 성장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녀의 남편이 죽었으므로 핍박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그녀는 거둬들여 포도주 짜는 통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영에 속한 것을 실제로 체험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누렸다. 매일 매일 그녀는 주님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생명이라고 간증했다. 그녀의 가족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 자매가 집회에 참석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더욱더 때리고 핍박했다. 그 자매는 주님께 찬송을 드렸지만 그녀가 기뻐할수록 시어머니의 분노는 더해 갔고 그만큼 더 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 자매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때리면 때릴수록 그녀는 전보다 더 주님을 찬양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찬양을 하며 집회에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께서 몹시 화를 냈다. “도대체 너 뭐하는 거냐? 이렇게 가난한데도 너는 노래할 마음이 있단 말이나?”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서 또 심하게 때리는 것이었다. 그 자매는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는 또 주님을 찬양하고 큰소리로 기도했다. 그 소리는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렸고 시어머니는 문에 가까이 와서 엿듣게 되었다. “도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 애가 미쳤나?”라고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여러분은 그 젊은 자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는가?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저의 시어머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을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 꼭 구원시켜 주세요! 어머니에게 빛을 주시고 제게 있는 행복을 그분에게도 주세요! 어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 모든 몇 마디 간단한 기도가 시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며느리가 아마 자기를 저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렸다. 젊은 자매는 두려움에 떨며 시어머니가 또 때리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얘야, 괜찮니? 괜찮니? 나는 너를 때렸어! 그런데도 너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라고 구하는 거지?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니?”라고 물었다. 그 자매는 “어머니,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답니다. 기쁨이 넘쳐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 아무리 때리시더라도 제 마음은 더욱더 달콤하고 만족하는 걸요.”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들어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얘야, 무릎을 꿇자.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구나.”라고 말했다.

오, 우리의 공급이신 주님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이여! 놀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만족하게 된다. 압박은 우리가 주님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깨닫도록 한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이신 그리스도이다.

석류

이제 다섯째 항목인 석류를 보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은 석류를 본 일이 있는가? 익은 석류를 볼 때 여러분은 즉시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말한 그 젊은 자매를 생각해 보라. 그녀의 생활 속에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었던가! 그녀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현이었다. 그 생명은 얼마나 풍성했던가! 우리 동역자 중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그녀의 체험에 의해 공급을 받았다고 전해 주었다. 생명의 지극한 풍성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밀로, 보리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누리

고 체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이 석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이 땅에서 온갖 압력과 핍박과 고통과 갈등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케 함을 깨달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접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을 느낄 것이며, 생명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감람나무

여섯째 항목은 감람나무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나무는 감람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이다. 이것은 우리가 식물로 분류할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이다. 왜 성령은 이것을 마지막에 두셨는가?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주님 앞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두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름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 위에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분은 감람나무요, 기름의 아들이시다. 오, 우리가 주님을 밀로, 보리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또 석류나무로 누린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감람나무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기름으로 충만될 것이며 하나의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사사기 9장 9절에서 그 감람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람기름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감람나무, 기름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을 밀로, 보리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또 석류나무로 누린다면 우리

는 반드시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귀하게 하다' 라는 말을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의 가벼운 표면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갈 때 그를 존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으로 존귀하게 하겠는가? 여러분의 타고난 생명으로 존귀하게 하겠는가?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존귀하게 하겠는가? 여러분의 세상 지식으로 존귀하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기쁨의 아들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께서 왜 감람나무를 마지막 항목으로 두셨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항목으로 체험하여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된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나를 방문하러 왔다. 그러나 그는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가? 그는 “형제님, 오늘 전 영화구경을 갔는데요,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뻐서 형제님을 뵈러 왔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만 그가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는 성령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고 영화로 나를 욕되게 하러 온 것이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교통하기 위해 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 사람을 통해 존귀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참된 존귀함을 준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만 그들을 욕되게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일에 관한 말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 위에 부끄러움만 쌓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주님의 공훈과 은혜로, 성령에 의해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말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말로 그들을 욕되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밀이요, 보리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요, 석류나무요,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체험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통과한다면 틀림없이 여섯째 항목인 감람나무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기름의 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것이다.

동물의 생명

이제 동물의 생명에 관한 것을 계속 보기로 하자. 그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방면들은 너무나 많고도 풍성하다. 우리는 채소 곧 식물의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갖는다.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양면이 있다.

식물의 생명은 생육하며 번식하는 생명이다. 항상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땅에 묻힌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생육이요, 번식이다. 그러므로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생육과 번식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한 면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즉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정하신 음식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음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는 사람이 타락한 후, 즉 죄를 지은 후였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음식으로 동물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죄가 들어온 후 동물도 사람의 음식에 포함되었다. 죄가 없을 때에는 피를 통한 구속이 필요 없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 때문에 피가 요구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는 피를 통한 구속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물의 생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구속하는 생명, 즉 희생의 생명을 상징한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한 후 하나님 앞에 살

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명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의 두 면을 말한다. 한편으로 그분의 생명은 생육하는 생명이며, 또 한편으로는 구속하는 생명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속하는 분’으로 누려야 한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무언가를 배웠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밀로, 보리로, 또 여러 종류의 나무로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다만 보리로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로, 보리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석류나무로, 감람나무로 적용하고자 할 때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어린 양으로, 즉 죄들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적용해야 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에는 항상 식물로 된 제물과 동물로 된 제물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은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 그는 동물의 제물이 없이 식물만 바쳤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그리스도를 누리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덮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다만 식물로, 즉 밀이나 보리로만 누릴 수 없다. 여러분은 그분을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로도 누려야 한다. 그분을 생육하는 생명으로 누릴 뿐 아니라 동시에 구속하는 생명으로도 누려야 한다.

어느 날 한 성도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형제님, 형제님의 위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위하여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형제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쾌히 승낙했다.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아주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진수성찬이었다. 그들이 펼쳐 놓은 식탁은 정말로 다채로웠다. 파랑고, 빨강고, 하양고, 노랑고, 그것은 참으로 좋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려고서 “무슨 일이세요? 왜 고개를 저으시지요? 이 음식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좋아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는 않군요. 동물에 속한 음식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라고 말해 주었다. 거기에 준비된 것은 모두 식물뿐이었다. 온통 채소에다 약간의 과일이 있을 뿐 고기는 하나도 없었다. 동물에 속한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분의 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식물의 생명, 채소의 생명으로만 체험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다. 여러분은 소제(素祭)를 드릴 때마다 동물에 속한 제물도 역시 바쳐야 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보리로, 밀로, 무화과로, 또는 석류로 먹을 때마다 주님을 황소나 어린양으로도 먹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내게 와서, “형제님, 형제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님, 당신을 더욱더 누리도록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왜 언제나 주님께 그분의 피로 씻어 달라고 간구하시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형제여, 형제님은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해 주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고 적용할 때마다 그분이 식물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의 생육하는 생명의 모든 풍성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항상 주님을 구속하시는 분으로, 즉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어린양으로 적용해야 한다.

젓과 꿀

이제 두 가지 항목 젓과 꿀 을 더 보기로 하자. 좋은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젓과 꿀은 어떤 생명에 속하는가? 그것들은 동물의 생명에 속하는가, 식물의 생명에 속하는가?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배열하셨는지 주의해 보자.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꿀이 식물들과

함께 나열되어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꿀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신명기 32장 14절에서는 젖이 버터와 동물들, 곧 소 떼와 양 떼와 함께 언급되었다. 성령은 아주 공정하시다. 그분은 꿀은 식물들과 함께 두시고 젖은 버터와 동물들과 함께 두셨다. 그것은 꿀이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관계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꿀은 대개 꽃과 나무에서 추출된다. 물론 동물의 생명 일부 작은 동물인 벌 가 포함되어 있다. 꽃이 없으면 꿀이 있을 수 없고 벌이 없어도 역시 꿀이 있을 수 없다. 꽃도 있어야 하고 벌도 있어야 한다. 이 둘은 서로 협력한다. 이 두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생산된다. 그러나 대개 꿀은 식물의 생명에 속해 있다.

젖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유의 더 많은 부분이 동물의 생명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지로 젖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양편의 생산물이다. 만일 우리에게 목장(牧場)이 없고 꿀이 없다면 소 떼와 양 떼가 있더라도 젖과 버터를 얻을 수 없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과 젖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양식인가? 물론 그들 모두 좋은 양식이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 양식인가? 우리는 모든 식물의 생명의 열매보다 젖이 더 좋은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젖과 꿀로 인해 두 가지 생명의 연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떠한 면을 나타내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밀로, 보리로, 포도나무 등으로 누리며 동시에 그분을 황소와 염소로 누릴 때, 여러분은 주님이 젖과 꿀같이 좋고, 달콤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할 때 주님께 와서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적용하면 그분이 바로 젖과 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젖은 얼마나 좋고 꿀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스도는 그토록 좋은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달콤한 분이시다! 그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시다. 이러한 체험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인 생육하는 생명과 구속하는 생명으로부터 얻어진다. 여러분이 주님을 밀, 보리 등으로 깨닫고 동시에 소 떼와 양 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젖과 꿀로 더욱더 누릴 것이다.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물과, 여덟 가지 양식을 보았다. 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가! 우리는 주님을 생명수로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으로도 풍성하고 충분히 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의 생명이 성숙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때 주님을 위한 건축물이 있게 될 것이고 대적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 7 장

좋은 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Ⅲ. 광물(상)

그 땅은 물과 양식이 풍성할 뿐 아니라 광물도 풍성하다.

신명기 8장 9절 : “...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여기에서 철은 돌과 함께 있고, 구리는 산에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것은 철이 돌과 관계있고 구리는 산과 관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4장 22절 “... 그는 놋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구약에서 놋과 동은 모두 동일한 물질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놋과 철은 날카로운 기계와 관계있다.

신명기 33장 25절 : “네 문빚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의 놋과 철은 문빚장과 관계있고, 또 능력과도 관계있다. 미국 표준역 성경(American Standard Version)에 있는 주(註)는 이 구절에서 ‘능력’ 이라는 말 대신 ‘안식’ 또는 ‘안전’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참으로 ‘안전’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네 안전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철과 놋은 우리의 안전함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하다. 또한 여러분에게 안전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다.

예레미야 15장 12절 :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 구절은 철과 놋의 힘을 나타낸다. 그것은 아무도 철과 놋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엘상 17장 5 7절 :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 거대한 전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놋으로 덮여 있고 그의 무기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사람 자신은 놋으로 덮여 있었고 그가 전쟁을 할 때 사용한 무기는 철로 된 것이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놋과 같고”

시편 2편 9절 :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놋은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발과 관련된다. 그분의 발은 빛난 놋과 같았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 철은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관계있다.

마태복음 5장 14절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시편 2편 6절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성은 산과 관계있고, 시편 2편에서 시온산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관계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산 돌이시고, 우리 또한 산 돌이라는 것을 본다. 이 모든 산 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겔 37장 22절 :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의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

이 구절에서 나라와 왕은 산과 관계있다는 것을 본다. 주님은 그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 즉 그 땅의 산 위에서 그들을 한 나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시편 87편 1절 : “그 기초가 성산에 있음이여”.

여기에는 건축물의 기초가 산과 관계있다.

시편 48편 1 2절 : “여호와께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보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 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산과 관계있고, 큰 왕의 성은 시온 산과 관계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모든 관계 속에는 많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는 돌, 산, 철, 동 등 네 가지 항목이 함께 있다. 돌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산은 나라의 중심, 즉 왕국의 중심인 성을 위한 것이며, 철과 동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다.

네 범주의 풍성

우리는 그 땅이 첫째로 물이 많고, 둘째로 채소와 식물이 풍성하고, 셋째로 동물이 많고, 마지막으로 자원이나 광물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네 가지 범주이다. 그들의 순서를 잘 보자. 그것은 아주 의미 깊고 매우 영적이다.

먼저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다. 물이 없다면 식물과 채소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자랄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은 채소와 식물이 생기게 한다.

1958년에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땅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갔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삼 일 묵은 다음, 저주받은 성이라는 여리고를 보러 갔다. 예루살렘은 해발 천 미터에서 천이백 미터나 되는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고 사해가 위치한 여리고 골짜기는 해수면보다도 이백 미터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려면 세 시간이나 차를 타고 계속 내려가야 했다. 우리가 골짜기 맨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용광로 같았다. 어찌나 뜨거웠던지! 거기에는 바람 한 점도 없었다. 그곳은 불타는 불모의 광야였으며 폭염과 먼지뿐이었다. 우리는 즉시 황폐하고 건조한 광경의 한복판에 있는 옛 여리고 성의 잔해를 보러 갔다. 그런데 기쁘게도 그 성 바로 바깥에 샘물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치료한 바로 그 물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흥미롭게

보았다. 그곳의 물은 샘, 솟아오르는 분천, 그리고 흘러가는 시내였다. 우리가 눈으로 그 물을 따라가 보니 황량한 골짜기 한복판에 풀밭과 종려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곳에는 샘과 분천과 흘러가는 시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푸르고 푸른 땅이 펼쳐져 있었다. 성령은 물을 제일 먼저 두셨다. 샘과 분천과 시내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채소의 생명을 가져온다.

그러면 소 떼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들은 채소, 즉 식물의 생명을 먹고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순서를 알 수 있다. 첫째는 물이요, 그 다음은 식물이요, 그 다음은 동물이다. 이 세 가지 항목 다음에 성령은 돌과, 철과 동이 나오는 곳인 산을 언급하기 시작하셨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이 순서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영적 생명의 단계와 백 퍼센트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 생명의 단계

영적 생명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수로 체험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다. 와서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은 충만되고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로 올 때 그분을 생수로, 살아 있는 강으로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을 계속 가질 때, 우리는 더 진보된 체험으로 이끌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 강에서 생명나무가 자란다고 들었다. 생수는 우리에게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공급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수로 체험할 때 이 물에서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체험한다. 생수의 흐름과 함께 생명의 떡, 즉 생명의 양식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물을 체험할 뿐 아니라,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급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양식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양식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감람나무, 즉 기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여러분은 성숙한 것이다. 여러분은 젖과 꿀처럼 풍성하고도 달콤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이다. 꿀은 무엇인가? 꿀은 식

물의 생명의 가장 좋은 부분이다. 그러면 젖은 무엇인가? 젖은 동물의 생명의 가장 좋은 부분이다. 젖과 꿀은 모든 양식의 공급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이다. 때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조금 맛볼 때, 여러분은 그분이 너무나 풍성하고 달콤한 분이라고 느끼게 된다. 여러분은 젖과 꿀이신 그리스도를 약간 누린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했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젖과 꿀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다음에는 날마다 젖과 꿀을 먹고 있다고 느낀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풍성하시다. 물론 생수는 젖과 꿀에 포함되지만, 이 음료는 물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깊이 인상을 받은 것이 있다. 나는 목이 말라서 함께 묵고 있는 형제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했다. 물주전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미안하지만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미국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당신들은 물주전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크기의 온갖 종류의 차 주전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또 보온 물병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왜 그럴까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내게 우유 한 컵을 주면서, “형제님, 이곳 미국에서는 물 대신 우유를 마신답니다. 날마다, 아침에나, 점심에나, 저녁에도 저희들은 우유를 마신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오, 이 나라는 정말로 풍성하군요! 당신들은 물 대신 우유를 마실 만큼 풍성하군요!”라고 감탄했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체험은 그분을 생수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생명이 성숙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생수 이실 뿐만 아니라 흐르는 젖과 꿀이 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은 순서를 주의해야 한다. 성령은 식물의 항목들 중 맨 마지막에 꿀을 두셨다. 그리고 동물의 항목에서는 소 떼와 양 떼 다음에 젖과 버터를 넣으셨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식물의 생명으로 누린 후에 그분을 꿀로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동물의 생명으로 어느 정도 누린 후에 그분이 바로 젖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풍성하고 달콤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광물의 단계에 이른다. 우리는 돌과 산과 철과 동과 관련된 곳에 왔다. 돌과 산과 철과 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들은 건축을 위한 것이요, 왕국을 위한 것이요, 전쟁을 위한 것이요,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생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성숙하게 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린 후에는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건축과 전쟁이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나아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재료가 필요하고 전쟁을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돌과 산과 철과 동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 땅 위에서 성과 성전이 건축되며, 성과 성전은 바로 이 재료들, 즉 돌과 철과 동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광물질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와 전쟁을 위한 무기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에 속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 단계에 도달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날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건축은 결코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매우 어린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수로, 밀로, 보리로, 또 이것저것으로 누려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려야만 주님을 위한 건축물과 대적과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때때로 여러분은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그 형제나 자매가 아주 좋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다고 느낀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앞에 올 바르고 그들의 태도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 안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묘사할 적합한 말을 찾기도 곤란하다. 아마 여러분은 그들이 약간 무기력하며 약간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들은 바로 빵 조각 같다. 그 빵은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다! 그들은 또 한 잔의 우유에 비유될 수 있다. 우유는 좋고 풍성하다. 그러나 단지 액체일 뿐이며, 액체처럼 약하다. 이제, 돌과 철과 동을 보도록 하자. 오, 이것들은 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들은 돌 같지 않으며, 철이나 동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여러분은 젖을 무기 삼아 싸울 수 없다. 여러분은 빵 조각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으며,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전쟁하러 갈 수 없다. 그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여러분은 철이나 동을 가져야 한다. 힘 있는 것을 소유해야 한다. 우유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빵 덩어리를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여러분은 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건축 재료를 가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료를 캐낼 수 있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산이 있어야 한다.

종종 나는 어떤 주님의 종을 만날 때 산을 만난 것 같다고 느낀다. 그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안전한지 나는 다 말할 수 없다. 그는 마치 산과 같다. 그가 앉아 있으면 산이 거기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그를 칠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이 다칠 것이다. 이것이 산이다. 여러분은 그를 처리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마지막 단계이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지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돌이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은 참으로 가능하다. 여러분은 빵을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포도를 쌓아서 기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돌로, 철로, 놋으로 기둥을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아주 적합하다. 하나님의 건축에는 돌과 철과 동과 산이 필요하다. 이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계있고,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있다.

흙에서 돌로 변화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만 마시고 있는 어린아이라면 주님의 건축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성숙해야 한다. 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다. 우리도 또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 주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한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흙덩이이다. 우리는 돌이 아니라 흙이다. 주님의 건축물은 돌로 건축된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덩이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흙에서 돌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

이따금 어떤 형제가 내게 올 때 나는 그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속에는 단지 작은 분량의 돌이 있을 뿐 아직 대부분은 흙이다. 여러분도 그런 형제들을 만났을지 모른다. 약간의 변화는 인정할 수 있다. 그들은 돌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 존재의 대부분은 여전히 본래의 상태 그대로다. 그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서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흙의 성분이 매우 많다. 그들은 여전히 타고난 상태 그대로이다.

어느 날 몇몇 형제들과 교통을 한 적이 있었다. 교통 가운데 한 형제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다. 나는 그 형제를 가리켜, “형제여, 형제의 영 안에는 약간의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머리는 흙덩이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대단히 많은 형제자매들의 정신이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바로 타고난 사람의 정신 상태 그대로이며, 타고난 관념과 타고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흙으로 된 머리이다.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써 흙덩어리로부터 돌로 변화된다. 돌이 된 후에도 우리는 돌에서 보석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더욱더 불로 태워지고 압력을 받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흙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고 평범한 돌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돌이 보석이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건축된다.

산

돌은 언제나 산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윗돌을 구하

려면 산에 가야 한다. 평지에서는 바윗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서 산은 항상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땅 위에, 평지 위에 솟아올라 있다. 흙덩이인 여러분이 어떻게 돌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다만 부활 생명 안에서 가능하다. 모든 영적인 살아있는 돌은 부활 생명 안에 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아담의 생명 안에, 즉 옛 생명과 옛 성품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평지에 있을 뿐이다. 우리 가운데 산이 없으므로 돌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살며 행한다면 우리는 산의 실재를 누리는 것이며, 이 산에는 반드시 돌이 있다.

가령, 내가 몇몇 형제자매들을 만난다 하자. 한 형제로서 내가 타고난 생명을 따라 행동하고, 또 다른 형제도 항상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 하자. 우리를 만난 한 사랑스런 자매도 계속 그녀의 감정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자. 그녀는 때로 대단히 기뻐하고, 때로는 대단히 슬퍼하고 우울해 하기도 한다. 사실상 우리는 그러한 믿는 이이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그대로이며, 타고난 생명으로 계속 살아 가며 행하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에 산의 본성에 속한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분명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흙일뿐이다. 우리는 모두 평지에 있다. 여러분이 돌을 찾는다 해도 먼지나 흙이나 진흙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산이 없으므로 돌도 없다. 돌을 원한다면 산으로 가야 한다.

또 다른 무리의 성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안다.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며 새로운 영 안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부활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올 때 여러분보다 더 높고 고상한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돌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심지어 보석까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여기에도 돌이 있고, 저기에도 역시 돌이 있다. 산이 있기 때문에 돌들이 있다.

산은 하나님의 집과 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곳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성들은 산 위에 건축된다.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두루 여행할 때 거의 모든 성들이 이런 식으로 건축되어진 것을 보았

다. 골짜기이나 평지에 지어진 성은 거의 없었다. 성은 나라, 즉 왕국의 중심이다. 구약 성경에서 성은 항상 나라나 왕국의 상징이었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산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집과 성의 건축을 위한 돌과 재료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에게 주어졌다. 영적 권위, 즉 하늘에 속한 권위는 언제나 부활 안에 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관해 완전히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권위는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활의 문제이다. 만약 어떤 지방 교회에서 두 형제가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서 거한다면 그들에게 거룩한 하늘의 권위가 위임된다. 그들이 교회의 권위이다. 그들이 그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산이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왕국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생수로, 또 양식 공급으로만 누려온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서로 아주 행복했지만, 그러나 아주 어리다. 많은 경우 우리는 천연적으로 기뻐하고 타고난 감정 안에서 슬퍼한다. 우리 가운데에는 산도 없고 돌도 없다. 우리는 모두 흙덩어리인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의 권위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교회의 권위는 성도들이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 그들은 웃어도 부활 안에서 웃고, 울어도 부활 안에서 운다. 화를 낼 때라도 부활 생명 안에서 화를 낸다. 그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매일 매일의 즐거움이다.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산에 있는 돌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하늘의 권위가 위임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교회의 권위이다. 만일 여기의 성도들이 그와 같다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곳에 집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얻으려면 수년이 걸린다. 나는 다

만 여러분에게 방향을 알려 줄 뿐이다. 이것은 다만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지도일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겸손히 실행하라. “내일은 나도 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훈련하라. 그런 후에야 여러분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제8장
좋은 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Ⅲ. 광물(하)

성경: 신 8:9, 33:25, 렘 15:12, 계 2:27, 1:15, 마 28:18, 눅 10:19 마 16:18 19, 18:17 18, 엡 6:11 17

우리는 그 땅이 첫째로 물이 풍성하고, 둘째로 온갖 종류의 채소와 식물이 풍성하며, 셋째로 소 떼와 양 떼가 풍성하고, 넷째로 자원 또는 광물질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각각의 범주에 속한 항목의 이름을 열거해 보겠다.

1. 물 : 샘, 분천, 시내
2. 식물과 채소 :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3. 동물 : 소 떼, 양 떼
(위의 두 생명, 즉 식물과 동물의 연합으로 젖과 꿀이 생산된다)
4. 광물질 또는 자원 : 돌, 산, 철, 동

우리는 이 모든 풍성이 우리 영적 생명의 여러 단계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았다. 생수는 우리 영적 체험의 첫 단계에 속한다. 처음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느낀다. 그다음 둘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하게 누린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과 같은 분이시다. 그분은 물 이상의 분이시다. 물은 분명히 좋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

만 그렇게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물만으로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다. 여러분이 나를 만찬에 초대한다면 나에게 단단한 음식, 즉 밀이나 보리 등을 주어야 한다. 식물과 채소 맨 끝에 기름의 아들, 즉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람나무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주님은 안팎으로 성령으로 적셔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흠뻑 적셔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젖과 꿀처럼 매우 친근하며 달콤하고 풍성하시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풍성하게 체험한 다음 우리는 즉시 자원과 광물질, 즉 돌과 산과 철과 동에 이른다. 이것이 성령께서 배열하신 순서이다. 성령은 이 모든 항목을 영적 생명의 단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순서로 배열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할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돌과 산과 철과 동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앞 장에서 우리는 돌과 산에 관한 것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는 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로 변화된 성도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살아있는 돌로 변화되어야 한다. 본래 우리는 돌이 아니었다. 우리는 흙덩이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끊임 없이 일해 오셨다. 성령의 새롭게 함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도록 흙덩이에서 돌로 변화된다.

우리는 또한 산이 부활과 승천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다. 부활과 승천에는 언제나 권위와 왕국과 왕이 있다. 부활이 일으켜진 것이라면, 승천은 높여진 것이다. 이러한 높여짐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왕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것이 산의 의미이다. 우리는 흙이 돌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는 다만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본래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돌이다. 신성한 권위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산출되는 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

분의 생명의 요소로 더욱더 변화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건축물과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철과 동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인 철과 동에 이르렀다. 나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의 순서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말한다. 그 다음 2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과 관련된다. 에베소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유일한 책이다(3:8). 이 풍성에 관한 설명 뒤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에 이른다. 6장에서 우리는 전쟁을 본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항목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도달하게 될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을 넘치도록 누렸으며,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정도까지 주님을 누렸고, 하나님의 건축물과 신성한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점에 이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싸울 수 있고 싸울 자격을 갖게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은 싸워야 하며 또 싸울 수 있다.

우리는 6장에서 전쟁터에 이끌리자마자 투구, 흉배, 방패, 칼과 같은 용어들을 접하게 된다. 투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또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들은 분명히 부드럽고 연약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낫으로 무장한 거대한 전사가 나온다. 그의 머리, 가슴, 무릎, 다리는 온통 낫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가 가지고 싸웠던 칼은 철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의 풍성의 마지막 항목은 철과 동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마지막 단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는 동과 철이 모두 필요하다.

철과 동은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를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철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분은 하늘들 위로,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셨으며, 만물 위에 머리가 되

셨다. 그분은 철을 가지고 계신다. 철장이 그분의 손에 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면 동이나 놋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상징하는가? 놋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심판하는 능력과 심판하는 권위가 모두 그분께서 겪으신 시험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온갖 시험을 통과하셨고 모든 종류의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의 발은 풀무에서 정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발은 행함, 즉 이 땅에서의 생활을 나타낸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행함과 생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련되고 닦여지고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의 행함과 생활은 대적과 사람에 의해서도 시험을 받았다. 이 모든 시험에 의하여, 주님의 생활과 행함은 입증되었으며 완전하고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그분은 자격을 갖추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을 갖게 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시험받고 심판받고 정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만 놋이 아니라 정련되고 빛나는 놋으로 무장되셨다. 그분은 심판할 근거와 권리를 갖게 되셨다.

동을 적용함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또는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 집회에 올 때, 때때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죄가 많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은 주님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 주시기를 구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자신으로 덮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놋으로 만들어진 투구이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빛나는 분이시고, 시험을 받아서 인정받은 분이시다. 그런 때에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을 사용해서 대적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탄아, 나는 더럽다. 나는 죄가 많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며, 시험을 받아 인정받은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덮는 분이시며, 나의 머리를 지켜 주는 투구시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시험받고 입증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리를 지켜 주는 투구로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리라 믿지만, 분명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빛 비춤 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는 사탄의 간교한 일을 잘 알고 있다. 삼십 년 전,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대단히 사랑했다.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 그 교통은 얼마나 달콤했는지! 주님의 임재는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러나 내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온갖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똑같았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불과 며칠 후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아니다! 이것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대단히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놀라운 교통을 해 왔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단 말인가! 그것은 분명히 대적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외쳤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나는 대적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것이 내가 전쟁을 하는 방법이었다.

얼마 후 나는 나의 머리에 쓸 투구가 있다는 것과, 그 투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이 공과를 배웠던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주님, 당신의 투구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나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했다. 나는 승리를 얻었다. 나중에 나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토록 효능 있는 덮개가 되실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대적과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받고 입증되었고, 또 완전하고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늦이요, 빛난 주석이시다. 주님은 능력과 힘과 자격과, 모든 공격에 저항할 근거를 갖고 계신다. 대적은 이 완전한 분을 만날 때마다 도망간다. 혼자서는 결코 싸우지 말라. 이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전쟁은 주님의 일이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어떤 어린 소녀의 아버지에게 그리스도

인인 한 친구가 있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소녀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교통을 하게 되었다. 어린 소녀는 그들의 교통을 들었다. 그 친구는 대단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대적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그 어린 소녀는 참다못하여 말을 했다. “아저씨, 저는 결코 대적에게 패하지 않아요. 아저씨는 저보다 훨씬 더 크시지만 전쟁에서는 항상 지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기는 걸요!”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오! 이것 봐라!”하고 놀라서 몸을 돌이켜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내게 말해 봐라. 너는 어떻게 전쟁을 이겼지?”라고 물으니, “아, 그것은 정말 쉬워요. 적이 내게 와서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누구세요?’ 하고 묻지요. 그는 ‘나는 사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나는 ‘좋아, 기다려! 나는 예수님을 부를 테야.’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적은 말하기를 ‘아무 것도 아냐. 난 갈래.’ 라고 말하고는 도망가 버려요. 이것이 나의 방법이에요. 전쟁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걸요.”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여러분이 혼자서 사탄과 싸우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가서 믿음으로 그분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은 분이시요, 입증된 분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덮개가 되신다. 대적은 그분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의 덮개이신 주님을 적용하라.

주님은 철저히 시험을 받으셨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낫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덮개를 가지고 계신다.

철을 적용함

권위, 즉 철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분께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주님은 또한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의 권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가? 여러분은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권위와 능력의 차이점을 아는가?

예를 들어 보자.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거리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한 작은 경찰관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거리에 서서 손을 들면 모든 차들은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권위, 즉 정부의 권위이다. 그 작은 경찰관은 정부를 대표한다. 여러분은 그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차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차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승용차나, 트럭이나, 버스나 어느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정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멈춘다. 경찰관의 힘은 모든 차량의 힘과 비교해 볼 때, 또는 그 차량들 중 작은 차와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약하다. 사실상 경찰관의 힘은 거의 무(無)에 가깝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의 강력한 승용차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권위이다. 그가 “정지!”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은 정지해야 한다. 그의 권위가 여러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다.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머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작은 경찰관은 정부의 권위를 대표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왕을 대표한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전에 이런 권위를 누린 적이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불쌍한 거지처럼 행동할까 염려된다. 여러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리스도께 위탁된 권위가 여러분에게 위탁되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대적의 모든 능력을 정복할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오, 이것은 어떠한 구원인가! 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 보라.

사거리에서 있는 작은 경찰관은 모든 차량을 멈추게 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에 가서 “정지!”라고 하다가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나에게서는 그곳에 설 근거가 없다. 나에게서는 제복이 없다. 여러분이 다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적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부활 안에 살고 있는가? 그 작은 경찰관은 거기에 서서 모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가 묶으면 무엇이든지 묶인다. 그가 풀면 무엇이든지 풀린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내일 제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선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생명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가 제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제복을 벗을 때에는 차량에게 지시하는 일이 무의미하며 어울리지도 않게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서 걷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타고난 옛 생명 안에서 걷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의 타고난 옛 생명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요, 제복을 벗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없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악령을 쫓아내었다(행 16:18, 19:12).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즉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악령들이 나가기는커녕 그들에게 뛰어올라 공격을 하여, 그들은 벌거벗고 상처를 입은 채 도망하였다(행 19:13-16). 그들에게는 근거가 없었고 권위도 없었다. 악령들은 바울을 알아보고 그에게 복종했으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권위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이다.

우리는 철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철은 돌에서 온다. 그러면 돌은 어디 있는가? 돌은 산에 있다. 돌은 부활 안에 있다. 여러분이 아직도 흙덩이의 위치에 있을 때는 결코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흙인 타고난 사람에게는 근거도 권위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속에는 철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부활 안에 사는 하나의 돌이라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권위를 갖게 된다. 여러분은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다만 그것을 선포하고 사용하면 된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권위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정말로 효력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 이것이 권위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부활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왕국을 갖고 있는 것이며, 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국이 존재하게 되는 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권위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산과 왕국과 신성한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

신명기 33장 25절은 문들의 빗장이 철과 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들은 우리의 보호와 방어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권위와 심판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과 보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은 주님의 권위와 심판으로 빗장질러 잠겨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전함과 보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안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언제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건축을 위한 재료요, 집을 짓기 위한 돌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건축된 집이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즉 산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첫 단계에서 시작하여 둘째 단계, 셋째 단계를 거쳐 넷째 단계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첫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생수로서 적용하고 누리기를 배워야 한다. 또한 둘째 단계에서는 주님을 단단한 음식으로 적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젖과 꿀처럼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고 풍성하게 되는 정도까지 주님을 누리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와 심판을 요구할 근거를 갖는 지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많은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까지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권위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차량들이 경찰에

게 접근해 올 때 그가 차를 멈추기 위하여 시장(市長)을 불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경찰은 이 일을 하도록 권위를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와 달라고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위치에 서서 우리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한다.

그러나 반복하건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권위를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형제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을 때, 바울은 그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했다. 바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권위를 행사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바울처럼 생명이 성숙해야 한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있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매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생수에서 시작하여 철과 동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더 많은 항목이 있다. 나는 이 몇 장에서 단순히 몇 가지 암시만 준 것이다. 에스겔 34장 29절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한 식물을 일으키리니”라고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명한 식물이다. 그리스도는 또 다른 종류의 식물이다. 오,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하신가! 우리는 결코 그분에 관해 다 말할 수 없다.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다. 아가서 2장은 사과나무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보다 더 정확한 번역본은 그것이 일종의 오렌지 나무라고 지적한다. 그리스도는 오렌지나무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풍성의 여러 면을 계시하는 많은 식물들이 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관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향품인 몰약, 향기로운 육계, 향기로운 창포, 계피 등이 언급되고 (23-24절) 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향품인 유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이 언급된다(34절). 이 식물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지극히 향기롭다. 오, 그 풍성이여! 오, 다함이 없는 풍성이여!

이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요, 지극히 좋은 땅이다. 이 땅은 특별히 축

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점에서 좋다. 이 땅은 얼마나 풍성한가! 이 땅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해 보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제 9 장 땅을 점령하는 법

I. 양, 만나, 언약케, 성막에 의하여

에베소서 3장 17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위의 세 구절에서 몇 가지 중점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17절의 ‘계시게’ 라는 단어에 주의하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이 구절의 ‘계시다’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집’ 이나 ‘거처’ 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헬라어 단어를 ‘그분의 집을 만드시다’ 라고 번역하고 싶다. 이것은 ‘계시다’ 라는 말보다 의미를 더 깊고 충분히 전달해 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집을 만들기 원하신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능히’ 또한 강하고 비중 있는 단어이다. 헬라어로 그 단어는 ‘충만한 능력을 가진’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절을 ‘너희가 충만한 능력을 가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깨달아’ 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단지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앎으로써, 어떤 것을 소유하고 이해함으로써 어떤 것을 얻는다. 이것이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즉 그리스도의 광대함, 그리스도의 무한한 크기를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한 개인이 그렇게 무한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야 한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집을 만들기 원하신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깨달아 그것을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

출애굽기 33장 14 15절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첫째 요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임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둘째 요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언급하신 안식은 좋은 땅 안에서의 안식이다.

신명기 12장 10절 :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25장 19절 :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 두 구절을 볼 때 주님께서 언급하신 안식이 바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땅이 곧 안식이다.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안식 안에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1 2절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주님은 모세에게 첫 달 첫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40장 17절, 21절, 34절, 35절 : “제 이 년 정월 곧 그달 초일

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주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주님의 임재이다. 그 때에 사람들의 눈,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이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 보았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지극히 좋은 것들을 보았고, 그것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 모든 풍성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소중히 여기게 될 만큼은 충분히 보았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는 법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누릴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단체적인 문제

첫째,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 땅을 소유하리란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 혼자서는 결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러한 꿈도 꾸지 말라. 그런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몸의 일이다. 그 땅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하시다. 그분의 광대함은 무한하고, 그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획득하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단체적인 몸을 위한 것이라는 이 원칙은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사람씩 차례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라고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 한 사람이 이번 달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다음 달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은 그다음 달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신성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 땅은 한 단체적인 몸이 소유해야 한다. 그 땅에는 개인적으로가 아닌 단체적으로 들어가야

만 한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이 길은 개인이 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단체적 인 몸의 일부분으로서 들어가야 한다.

어린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시작에서 유월절 양을 누렸는데(출 12장),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전 5:7). 그들은 이집트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누렸다. 그러나 가나안 땅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어린양이 그리스도요, 그 땅도 또한 그리스도이다. 겉으로는 두 그리스도, 곧 작은 그리스도와 큰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양만큼 작은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만큼 큰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다. 마치 우리가 이 작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동안 큰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는 그렇게 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사실인가? 나는 젊었을 때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 면에서 그분을 얻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두 분이신가, 오직 한 분이신가? 여러분은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물론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분을 얻으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또 여전히 그분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신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얻기 위하여 결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 메시지의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어린양이시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먼저 주님의 구속을 받아야 한

다. 우리는 주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첫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처음에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끝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무한한 분이시다. 처음에 그리스도는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한 어린양이셨지만, 마지막에 그분은 공간과 시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셨다. 그 무엇도 부활하신 그분을 제한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제한받은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비로소 무한한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얻기 위해 전진할 수 있다.

실제로 유월절에는 어린양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도 있다(출 12:8). 또다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갖게 된다. 어린양은 동물의 생명에 속한 것이고, 무교병과 쓴 나물은 식물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를 두 가지 생명으로 체험하였다. 여러분은 그분을 생육하고 번식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구속하는 어린양으로 체험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주목한 적이 있었는가? 이제 또 한 가지를 지적해 보이겠다.(이 좋은 땅의 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다.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 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이 또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 두 생명을 하나로 결합시키셨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48절)고 말씀하셨다. 떡은 무엇인가? 그것은 밀이나 보리로 된 것이요, 식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의 떡은 곧 그분의 살이다. 떡은 식물의 생명이며 살은 동물의 생명이다. 이렇게 6장에서 주님 자신이 이 둘을 함께 묶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육하는 능력, 번식하는 힘이 있는 구속하는 어린양으로 누림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어린양을 먹어야 한다.

만나

유월절을 누린 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로 체험한다. 우리는 그분을 양으로 누린 후 계속해서 그분을 매일의 양식으로 누려야 한다. 만나는 식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동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을 보도록 하자.

민수기 11장 7 9절 : “만나는 짚씨와 같고 모양은 베텔리엄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땃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 :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므로 짚씨 같고도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가 어떤 씨와 같고 그 맛은 신선한 기름과 꿀 같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도 두 생명이 함께 섞여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만나의 모양이 베텔리엄과 같다는 것에 주목하라. 베텔리엄의 올바른 의미는 진주이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진주가 하나님의 건축물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진주처럼 만나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변화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 베텔리엄은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소개되고, 다음에 강이 나오고, 그 강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보석 중의 하나가 바로 베텔리엄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와 생수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변화된 재료인 진주가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나는 식물의 생명의 본성, 동물의 생명의 본성, 변화된 생명의 본성 모두를 지닌 물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면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어린양이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변화된 본성을 포함하는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한다.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인가? 아니다. 다른 것이 또 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길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24장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읽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계

유월절 어린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전진해서 성막으로 체현되고 성막으로 덮여 있는 언약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출 25:10-22). 언약계란 무엇인가? 언약계는 곧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증거란 단순히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하나님의 표현이다. 언약계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이 있다.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십계명은 다만 하나님의 엄격한 요구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저것을 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심겨준 인상이다. 그러나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얼핏 보면 십계명은 법이다. 그러나 주된 의미는 그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일차적인 의미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데 있다.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십계명에 의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묘사해주는 열 가지 말씀(출 34:28)이 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분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둘째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감춰진 하나님에 대한 묘사요, 표현이요, 나타남이다.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해준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십계명이 법이라는 데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십계명의 첫째 의미는 그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묘사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 십계명은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을 상징한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증거궤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언약궤는 두 가지의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이다. 언약궤는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다. 나무는 인성이요, 금은 신성이다. 그것은 신성과 연합된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림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언약궤이시다. 그러나 그분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십계명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언약궤가 '증거궤'라고 불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증거이시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월절 양이나 매일의 만나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견고하고 완전하며 충만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유월절 양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약간은 알 수 있을지 모른다. 매일의 만나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새겨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언약궤로 와 보라.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을 읽어 보라.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즉시 감춰지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약궤를 먹을 수 있는가? 언약궤를 마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방면, 곧 그리스도의 보다 완전한 방면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나타남이요, 증거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매일의 만나로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더 큰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증거께, 곧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과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더 큰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어린양을 소유하고 우리의 양식인 매일의 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서 증거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반복하는 것을 허락하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 중 몇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까 염려된다. 매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매일의 만나로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다면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이란 하나님의 표현이요, 나타남이요, 증거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중심이 있는가?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집회, 우리의 교회 생활의 중심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가? 만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속 받은 사람들로써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다는 것만 깨닫는다면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만일 그들이 우리를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로 깨닫는다면 이것마저도 표적을 놓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중심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과 정의와 설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가? 그들은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그 실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우리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린양을 누리고 흥해를 건넌 즉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이후, 즉 유

월절과 홍해를 지난 후에도 우리가 체험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모든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체험해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소유해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언약궤의 완전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틀림없이 십계명에는 법의 방면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방면을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요, 해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 이러한 설명은 육체가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설명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표현이시요, 하나님의 증거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증거로서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한다.

성막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다.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다(출 40:20 21). 그러면 성막이란 무엇인가? 성막은 언약궤의 확장이요, 증가이다. 언약궤는 금으로 입혀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성막의 주요 부분도 똑같은 재료, 즉 금을 입힌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출 26:15 30). 그러므로 성막은 곧 언약궤의 확장이다. 바꿔 말하면 확장된 언약궤가 성막이 되었다. 성막은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그리스도로 더 많이 조성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을 보도록 하자. 성막을 덮는 덮개는 네 층으로 되어 있다(출 26:1 14).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중의 하나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四)'는 피조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두 다른 종류의 덮개인 네 층은 어떤 것인가? 맨 바깥 덮개는 해달의 가죽인데 그것은 바람과 비와 태양열을 막아 주는 튼튼한 보호 장치이다. 해달의 가죽 아래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

죽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또 그 아래에는 염소 털로 된 덮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는 베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고 곱고 영광이 가득하다. 이 모든 덮개에는 의미가 가득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계된다.

안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오, 그리스도는 안에서 볼 때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그분은 초라하고 겸손하고 단순하시다. 여러분은 그분의 힘과 인내하는 능력은 볼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볼 수 없다.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비천한 사람이신 예수시다. 그러나 안에서 볼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덮여 있다! 성막의 치수를 보면 그 덮개는 양장 열 폭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일 안쪽의 덮개는 좋은 베로 된 열 폭의 양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염소 털로 된 덮개는 열한 폭의 양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다섯에 다섯을 더한 것이 아니라 다섯에 여섯을 더한 수이다. 여섯은 좋은 숫자가 아니다. 여섯이란 사람을 뜻하는 수로서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안쪽의 덮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둘째 덮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이다. 셋째 덮개는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넷째 덮개, 즉 가장 바깥쪽 덮개는 자신을 낮추셔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즉 이 네 겹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 이 어떠한 덮개인가! 이 어떠한 보호이며, 어떠한 안전인가!

이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는 대단히 많은 널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 곧 나무로 된 널판이다. 여러분도 하나의 널판이요, 나도 하나의 널판이다. 언약궤는 그러한 성막 안에 체현되었으며, 이 성막은 우리와 결합되시고, 모든 널판들이 금 안에서 연결되었듯이 우리 모두를 신성한 본성 안에서 연결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적어도 마흔여덟 개의 널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금으로 덮여 있었고 금 고리와 금

띠로 함께 연결되었다(출 26:26-29). 우리가 만일 거기에서 금을 제거해 버린다면 마흔여덟 개의 널판들은 떨어져 버릴 것이다. 단 하나도 다른 것과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연결되지 못한다. 그런 방법으로는 연결될 수 없다.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금은 이름매이다. 금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합일이다. 금이 없다면 우리는 조각조각 떨어질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금은 여러분을 덮고 있고 또 나를 덮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금 고리가 있고, 나에게에는 금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도망가기를 원할지라도 도망갈 수 없다. 여러분은 묶여 있다. 여러분과 나는 함께 묶여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없다. 우리의 사이가 좋다 해도 그것은 참되고 견고한 연결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신성한 것에 의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의해 참되고 끊어질 수 없는 연결 안에서 묶였다. 우리는 금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으로 덮여 있고, 금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 금이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어느 날 내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넌 참 안됐다! 너는 신성한 본성에 붙잡혀 도망갈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 ‘황금 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이 합일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합일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힘과 자격을 얻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서 도망칠 수 있고 서로서로 분리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성막, 즉 언약궤의 체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막처럼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함께 묶여야 한다. 언약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막이 언약궤의 체현인 것과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월절 어린양으로, 매일의 만나로, 성막 안에 체현된 언약궤로 누려야 하는지를 보았다. 이 모든 체험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들이다.

제 10 장 땅을 점령하는 법

Ⅱ . 제물과 제사장에 의하여

성경: 레 1:1 3, 2:1, 3:1, 4:2 3, 5:5 6, 8:1 13, 출 40:17 21

우리는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지를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을 얻고 싶다면 그분을 조금씩 누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양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 전진하여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으로서 주님을 누렸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초보적인 예표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렇게 깊거나 풍성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 정도의 체험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다.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예표인데 그것은 훨씬 더 견고하고 풍성하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어린양과 만나와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진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더 많은 부분이 언약궤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속하신 분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만 깨달을지도 모른다. 만나는 더 진보된 것이요, 참으로 좋은 체험이다. 만나를 통해 우리는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맛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변화된 재료인 진주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들도 정말 좋지만 언약궤에 비할 수는 없다. 언약궤의 체험은 훨씬 더 견고하고 그 내용은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다. 언약궤에는 하나님 자신에 관해 기록된 것이 있다. 언약궤의 내용에 의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언약궤와 더불어, 언약궤의 체현이자 확장과 증가인 성막이 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표현이다. 왜냐하면 성막의 주요 부분은 언약궤와 정확히 똑같은 본성이기 때문이다. 언약궤는 금을 입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성막도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그리스도의 확장과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막이 마흔여덟 개의 나무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막은 몸의 많은 지체들을 상징하는 매우 많은 널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은 모두 신성한 금으로 싸이고 묶임으로써 함께 건축된다. 그들은 금 안에서 하나이다. 그들은 금으로 덮여 있고 금 고리와 금 띠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금 밖으로 나온다면 그들은 조각조각 떨어져 서로 분리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본성 안에서는 나무 조각들이지만 신성한 본성, 곧 삼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하나이다. 더욱이 성막이 네 층의 덮개로 덮여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모두 네 층의 그리스도로 덮여 있다. 그리스도의 표현이자 확장인 교회는 그러한 덮개 아래 있다. 마흔여덟 개의 이 모든 널판들은 은 받침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신성한 금으로 싸이고 묶이며, 네 층의 그리스도로 덮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 위에서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가요, 표현인 교회이다.

우리는 이것이 유월절 어린양과 만나와 생수가 흘러나는 반석보다도 훨씬 분량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에 견고한 것이 있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밖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참된 표현인 그분의 확장이 있다. 이 그리스도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의 중심이다. 만일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타남이자 표현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

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확장, 이 그리스도를 위한 성막, 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항상 증가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어린양을 먹고 누림으로써 시작한다. 그것은 작은 어린양이다. 비록 그것은 완전하고도 온전하지만 아주 작다.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즉 우리에게 공급된 양식으로서 매일 누리고, 또 생수가 흐르는 반석으로서 매일 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커지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나타남과 설명으로서 누리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한 정도로, 보다 견고하게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읽어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장,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과 증거가 되어야 한다.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의 중심으로 소유하고, 이 언약궤를 체현하기 위해 성막으로 함께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성막을 가득 채운다.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며, 그리스도를 언약궤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언약궤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확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모이든지, 형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감각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영광이다. 이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언약궤가 중심인 곳에, 또 언약궤의 확장과 체현인 성막이 건축된 곳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의 전구(電球)로 설명할 수 있다. 전구는 전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다. 전구는 전기에 연결되지 않을 때 영광을 갖지 못하며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전구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가 켜질 때 영광이 전구를 가득 채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영광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에 이를 때 그러한 실재가 있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표현이 없다. 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로, 생수가 흐르는 반석으로 누릴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타남 영광은 없다. 어느 날 언약궤가 성막 속에 놓여지고 성막이 은 받침 위에 세워지고 네 층의 덮개로 덮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에 관한 분명한 그림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은 그리스도 자신의 확장이다. 이것은 우리와 연합되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작은 유월절 어린양도 아니요, 매일의 만나와 반석이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고 우리 가운데서 증가되신 그리스도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적셔져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었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시며,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으로 덮였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 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다. 그분은 나무에 금을 덮어 만들어진 언약궤시며, 우리 또한 나무에 금을 덮어 만들어진 널판들이다. 숫자상으로는 다르지만 본성에서는 똑같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며, 금 안에서 하나로 결합된 이 모든 널판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이 지점에 이를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신다. 이것이 증거이다.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며 우리를 통해 확장되신 그리스도를 증

언하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 나는 여러 번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바 있다. 나는 여러 번 그러한 단계에 이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영광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안다. 우리가 다만 유월절 어린양이나 만나로서가 아닌, 더욱 충만하고 견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때 우리 가운데에는 항상 영광이 있게 된다.

제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좋은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리스도를 구속하는 어린양으로 누림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또한 계속 전진하여 주님을 매일의 만나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으로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았다. 또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누려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표현과 확대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마치고 다음 책인 레위기에 왔다.

성막이 세워진 후, 다음으로 우리는 제물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든 제물의 방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지!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것을 이미 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성막은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성막을 접촉할 수 있는가? 여기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우리들 자신 안에서는 이 증거를 접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의 입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입구에 접근하여 성막을 접촉하는 올바른 유일한 길은 오직 제물들에 의한 것이다. 제물이 없이 성막을 접촉하는 것은 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막을 접촉하려 올 때 우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오,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하신지! 주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그분은 제물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타남, 즉 하나님 자신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제물이란 무엇인가? 제물에는 다섯 가지,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증거를 접촉하고 싶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표현을 접촉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드러야 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때로는 속건제로, 때로는 속죄제로, 또 소제로, 화목제로, 때로는 더 자주 번제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주 분명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회에 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인 성막을 접촉하러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느낌이 있다. 아마 어떤 형제에게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여러분은 오늘 그를 보았고 심지어 그에게 웃어보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웃음은 미움의 표현이었다. 여러분이 성막과 증거를 접촉하러 올 때, 성령은 여러분이 죄를 느끼도록 하신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짓된 방법으로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은 미움을 가지고 그를 보고 웃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적용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바깥 말하면 사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형제에게 다른 형제의 상태에 관해 묻는다. 그는 “그 형제는 아주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한편으로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어떤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물어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좋은 형제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형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가장 좋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집회에 올 때 제일 좋은 자리를 골라 앉을 정도로 이기적이다. 이곳 미국에서는 집회에서 개인용 의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대만에서는 집회에서 긴 의자를 사용한다. 긴 의자는 평상시의 집회 때에 네 사람이 앉기에 충분한 길이이다. 그러나 특별 집회 때는 형제자매들에게 의자마다 다섯 명이 앉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밀착하여 앉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들은 자리를 넓게 잡아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밀착하여 앉으라고 강요한다. 이것이 성막과 주님의 증거를 접촉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는 주님을 속건제로 적용할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다면 우리가 이 성막을, 이 증거를 접촉하러 올 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사악함과 범죄를 느끼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깨닫고, “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를 씻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속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다시 한 번 나의 속건제로 적용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적용할 때마다 즉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됨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양심은 편안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과 좋은 교통을 나누고 몸과 좋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할 때마다 늘 항상, 주님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양심의 정죄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고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내 양심이 순수하게 되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속건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요구할 만큼 담대해진다. 피가 정결하게 한 곳에는 기름 부음이 따라온다. 관유를 바르는 것은 언제나 피로써 정결케 한 다음에 온다. 우리는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운행을 요구할 수 있는 피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속건제로 적용할 때,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그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주님을 찬양하자! 나는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말씀을 전

하러 할 때마다, 봉사를 하러 할 때마다, 어떤 형제를 만날 때조차도,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나의 속건제로 적용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주님의 보호로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온종일 주님 안에서 보존되었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보다 깊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온종일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당신의 보호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다고 더 깊이 느끼게 된다. 깊은 속에서 범죄 그 이상의 사악한 어떤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단수의 ‘죄’이다. 그것은 죄의 본성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5, 6, 7, 8장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어진 죄이다. 죄는 우리 속에 거한다. 나는 여러 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죄라고 불리는 악하고, 강력하고, 살아 있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있다. 그것은 나를 정복할 수 있고 나를 패배시킬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몹시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살아 있는 본성, 즉 악한 자의 본성이다. 이것 때문에 한 제물, 곧 속죄제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은행 강도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다. 나는 “주님,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제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내 깊은 속에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다. 왜냐하면 강도짓을 하는 본성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실제로 강도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나도 강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님, 당신의 보호로 다른 사람을 강탈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 저는 죄의 본성, 즉 강탈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속죄제이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나의 속건제로 적

용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나의 속죄제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이여,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접촉하려고 할 때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여호와를 접촉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선하게 느끼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전히 속죄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또한 화목제이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하자.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속건제로, 속죄제로 누릴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을 화목제로 누리게 된다.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화평을 누린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서, 또 사람들과의 화평으로서 누린다. 주님은 그토록 달콤하고 만족하게 하는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화목제이신 그리스도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제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속건제로, 또 속죄제로 적용하고 체험한 직후 주님을 소제로 적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누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을 누린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고상하고, 순수하고, 영적이셨는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누린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로 누립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소제로 드리는 방법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번제로 여러 번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러한 분으로 누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 번 우리는 주님의 상(床)에서 이러한 체험을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제와 번제로 적용한다.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주님의 놀라운 삶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열두 살이셨을 때의 그분을 본다. 나사렛에 살던 한 가난한 가정에서 목수이셨던 그분을 본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수행하러 나오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신 것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신 것과 사람들을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대하셨는지를 본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의 소제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로 적용한다. 우리는 주님께, “당신은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당신은 번제이십니다. 저는 이곳 당신의 상 앞에서 뿐 아니라 온종일 당신을 저의 누림과 하나님의 만족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때때로 아침과 저녁에 당신을 소제와 번제로 누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제물이시다!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번제로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막 안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이것은 증명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체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만나로, 반석으로, 언약궤와 성막으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등 모든 제물들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시간, 매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 이 좋은 땅을 점령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먼저, 주님을 어린양으로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만나로, 반석으로, 언약궤와 성막으로 누려야 한다.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을 날마다 여러 가지 제물로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성숙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단계가 있다.

제사장 직분

레위기의 첫 부분에서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온 직후 제사장 직분이 소개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록 단장되고 자격을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론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소유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리고 체험하고 적용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리기 위하여 집회에 올 때, 봉사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사역을 수행하는가? 아마 여러분은 “형제님, 저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사역자이십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 또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하겠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다. 여러분이 형제이면 나도 형제이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사역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공급해야 한다. 무엇을 공급하는가? 여러분은 알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참되고 신실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공급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곧 제사장이다.

만일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반드시 제사장 체계가 있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대다수가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체계에 의하여 유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어쨌든 그들 가운데 제사장 체계가 있었고, 우리 가운데에도 또한 제사장 체계가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는 사역자나 목사나 설교자 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 대다수가 참된 제사장이 아닐까 염려된다.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이거나, 사업가이거나, 의사나 간호사, 학생, 혹은 가정주부일 것이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든다. 아론의 아들들을 모세 앞으

로 데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제사장 예복을 입혀 주었다. 제사장 예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여러분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바로 예복이다. 제사장들이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들이 입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다. 사업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한다. 가정을 돌볼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돌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 자매가 먼 도시에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 자매는 전보를 쳐서 그녀의 도착 시간과 비행기 편명을 알려 주었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전에 그녀를 만난 사람도 없었다. 그때는 복잡한 휴가철이었고 공항은 여행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형제들은 많이 걱정하며 내게, “형제님, 어떻게 그 자매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매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나는 “안심하십시오. 어떤 표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녀를 알아 볼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여자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지나갔다.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형제 중 한 명에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 저 사람도 아니고, … 아니고, … 아니고, …”라고 말하였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형제에게 “이 사람이 그 자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매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녀에게 말해 보십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 자매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제사장 예복’을 보고 그녀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약 30년 전에 한 자매가 상하이(上海)에서 배를 타고 중국 북부에 있는 우리를 찾아왔다. 그 배는 부두에 정박할 수가 없어서 많은 작은 나룻배들이 승객들을 해변으로 데려왔다. 승객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매우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소리를 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매를 결코 본 일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

사람도 바라보고 저 사람도 바라보았다. 우리는 도착하는 모든 나룻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찾아보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자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한 척의 나룻배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녀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모두 그 여인이 그 자매라고 말했다. 우리의 말이 정확히 맞았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어떤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표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참으로 많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갖추고 있고 그리스도로 장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예복이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대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한 자매로서 여러분이 온종일 그리스도를 대한다면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것이다. 집회에 와서도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집회를 위해 두세 자매와 함께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역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되는 사역이다. 아마 여러분은 특별 집회에 올 손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 또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사역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음식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제사장들에게는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다. 여러분은 집회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다. 비록 집회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인 활동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강하고 유력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나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대부분 상하이에서 말씀을 전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일백 명의 형제자매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에 의해, 즉 기도하는 영과 받아들이는 영에 의해 사역을 하고 있었

다. 그들은 그들의 영으로 나의 말씀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으며, 그것은 아주 유익하고 값진 것이었다. 그 집회 장소에 앉은 수백 명의 사람들은 나를 영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였다. 그들은 나와 완전히 하나였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토록 살아있고 해방되어 사역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번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 집회를 마련하였다. 모든 형제자매들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른 방으로 물러갔다. 그러므로 집회 장소 전체가, 특별히 앞부분에는 불신자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나를 돕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혼자서 그 전쟁을 다 치러야 했다. 그 모든 불신자들, 즉 마귀의 아들들의 무게는 내게 너무나 무거웠다. 그들은 내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의 죄들은 나를 대항하여 일어섰다. 그다음 날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이백 명은 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지원하는 영이 있을 때 그 어떠한 담대함과 권위가 있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가 아니라 몸, 제사장 체계에 굴복되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홀로서 있지 않았다.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담대함을 보라. 그의 권위를 보라. 그 결과를 보라.

어느 해인가 대만에서 이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특별 집회가 있었다. 그 집회를 앞두고, 내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강단에 올라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들은 모두 강단 위에 올라왔고, 내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아멘, 아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이 나를 받쳐주었다. 그들이 나를 후원해 주었다. 나는 큰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온 회중은 굴복되었다. 주님께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 고조되었다. 이것이 사역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결코 대적

을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주님을 속일 수 없다. 만일 그 강단 위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면, 만일 그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멘”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양심에는 핑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아멘’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주 담대했다. 한 형제가 사역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군대로서 그와 함께 강단에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 한 형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 한 군대가 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할 때 그들은 모두 강한 영으로 “아멘”하여 대적을 몰아내 버렸다. 대적은 발붙일 틈이 없었고 온 집회는 주님께 정복되고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러한 체험을 했거나 그러한 집회에 있었다면 이러한 일의 실재를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참 사역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의복으로, 모든 것으로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레위기를 마쳤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항목을 체험해야 하는지! 주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분의 풍성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체험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언약궤와 성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물과 제사장 직분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훨씬 더 많은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하고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유월절 잔치로, 매일의 만나로, 생수가 나오는 반석으로, 언약궤와 장막으로, 다양한 모든 제물로, 참된 제사장 직분의 의장(義裝)과 양식으로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제 11 장 땅을 점령하는 법

Ⅲ. 통제하는 원칙에 의하여

성경: 출 40:36 38, 레 8:7 8, 10 12, 30, 20:26, 26:46

민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몇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좋은 땅에 들어가는 길은 유월절 어린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더 많은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는 우리에게 한층 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제하는 원칙들, 즉 통제하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고, 한 단체적인 백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단체적인 한 백성에게는 몇 가지 통제하는 원칙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 단체적인 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해야 한다. 만일 아무런 통제하는 원칙이 없다면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할 것이고, 무질서와 혼란은 대적의 원칙에 가까운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손상당하고 사탄과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통제하는 원칙, 즉 몇 가지 통제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한 여러 항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제정하신 통제하는 원칙

을 보게 된다. 적어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가지 통제하는 요소 또는 원칙이 있다.

주님의 임재

통제하는 첫째 원칙은 구름 기동과 불기동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이다. 나는 구름 기동과 불기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동과 불기동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 기동들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통제하는 첫째 원칙이다. 이 요소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활동 또는 움직임과 관계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가는 구름 기동과 불기동에 나타난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계속 전진하여 그 땅을 점령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출 33:14)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에 의해 그분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들을 이끄신 것을 의미한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 "당신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으려 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 '임재'가 갈 것이다. 그것은 그분께서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가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차이를 알겠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한번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 네 다섯 명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여행을 했다. 그러나 그때 한 형제가 우리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 이 한 형제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일호 차에 타고 있었고 그는 이호 차에 홀로 타고 있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갔었다. 그러나 그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함께 떠났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했고, 우리와 함께 도착을 했다. 그러나 그의 실재

(實在)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형제들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왔을 때 그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동안 내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실재는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서먹서먹한 것이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 그분의 임재는 가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려 하지만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가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지만, 그 여행 내내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지라도 그분의 임재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이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 나는 여러 번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나를 틀림없이 도우셨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셨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 번 주님의 임재를 갖지 못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셨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셨다. 나는 일호 차에 타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호 차에 타고 계셨다. 그분은 나와 함께 가셨지만 내가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가셨다.

수년 전, 한 젊은 자매가 결혼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였다. 그 자매는, “형제님, 제가 그 남자와 약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느껴져요. 주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의 약혼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나는 그 자매에게, “틀림없이 주님은 자매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도 자매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자매님을 기뻐하십니까? 자매님이 약혼하려고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자매님과 함께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오, 형제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말구요! 한 면에서 주님은 저를 도와주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 저는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알지요?”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아주 의미 깊었다. 그녀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예이다. 주님은 그녀를 도와주셨지만 그분의 임재는 거두셨던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분명해야 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지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저에게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로 통제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더욱 전진하여 “오, 주님, 저는 당신의 도움보다도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도 일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임재가 없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많은 형제자매들은 내게 와서, “오, 형제님, 주님은 정말로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그분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분의 임재 또한 느꼈습니까?”라고 묻고 싶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통제하는 요인은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이다.

어떤 주님의 일꾼들은 내게, “형제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돕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시다. 여러분 깊은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축복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또 주님의 바로 그 미소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부드러운 말이다. 대부분의 주님의 좋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 마침내 그 형제들

은, “사실 얼마 동안 주님과과의 교통을 잃어버렸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때 나는, “형제님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분의 임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주님의 축복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혹은 주님의 웃는 얼굴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라고 물었다.

형제자매들이여, 비록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당신의 미소 짓는 임재만이 저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웃는 얼굴이 있는 한,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져도 근심할 것 없습니다. 온 세계가 나를 대항하여 일어날지라도 제게 당신의 웃는 얼굴이 있다면 저는 당신을 찬양할 수 있고 제게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주님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어떠한 보배로운 말씀인가? 주님의 임재와 웃음이 바로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지만 동시에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 주님 자신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매우 잘 주시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겠지만, 바로 그 도움과 축복이 그분의 임재로부터 여러분을 떼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임재에 의해 보호와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외에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은 분명히 간접적인 주님의 임재는 여러 번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임재가 아니었다.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다스림 받기를 힘쓰라.

이것은 어떤 요구와 자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는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할 것이다. 오,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지!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내적인 체험에 속한 문제이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은 대단히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비밀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의 임재를 보이시는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깨닫는가? 고대에 그분의 임재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 밤에는 불기둥 안에 있었다. 태양이 빛나고 있는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밤의 어둠 속에는 불이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낮에는 구름이었고, 밤에는 불이었다.

이 두 가지, 구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말씀의 몇 단락에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한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성령은 때로 구름과 같다. 주님의 임재는 그 영 안에 있다. 여러 차례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었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것은 실로 비밀스럽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만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안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다. 주님은 그 영 안에 계시고, 그분의 임재는 그 영 안에서 깨달아진다. 실재는 그 영 안에 있다. 때때로 우리가 약할 때나 우리에게 격려나 확증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느끼실 때, 주님은 그 영께서 정말로 구름과 같다는 인식과 심지어 느낌을 우리에게 주신다.

1935년 나는 성령을 부어 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말씀을 전하는 도중 갑자기 구름이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마치 내가 구름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즉시 집회는 현저하게 전환되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쏟아 붓는 생수와 같았다. 온 회중이 깜짝 놀랐다. 여러분이 그러한 체험을 할 때, 여러분은 생각을 사용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은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이다. 여러분은 그러한 방식으로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인도와 격려이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에 대한 큰 부담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심으로써 여러분을 격려해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체험이다. 우리는 매일 평범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두운 밤에는 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구름의 의미와 같다. 구름이 불이요, 불이 구름이다.

주님의 임재는 태양이 빛날 때에는 구름의 모양을 취하고 어둠이 올 때는 불의 모양을 취한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 그러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상징한다. 구름은 그 영이요, 불은 말씀이다.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영 안에서 매우 분명할 것이다. 여러분은 쉽게 구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은 밤과 같고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을 신뢰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영은 아주 많이 혼란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말씀은 태우고, 빛나며, 밝게 하는 불과 같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한다. 하늘이 아주 맑고 모든 것이 매우 밝을 때에는 구름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어둠이 하늘을 가릴 때에는 어느 것이 구름이고 어느 것이 구름이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다. 그때 여러분은 불을 따라야 한다. 때때로 여러분의 하늘, 여러분의 낮은 지극히 맑고, 태양빛은 밝고 강하다. 여러분은 그 영께서 가시는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실수 없이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고, 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제는 그렇게 밝았지만 오늘은 너무나 어둡다. 혼동되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따르라. 말씀은 태우는 불이요, 빛나고 밝은 빛이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을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때로 형제들이 내게, “형제님, 저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취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을 취하십시오.”라고 대답해 준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임재는 항상 이 두 가지, 즉 그 영과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이 밝을 때에는 그분이 그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그분이 말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항상 이 두 가지, 즉 그 영과 말씀 안에 계신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밝은가?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은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

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해가 뜬 낮에 있기도 하고 어두운 밤에 있기도 한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낮, 즉 밝을 때에는 구름이신 그 영이 계시고, 밤, 즉 어두울 때에는 불인 말씀이 있다. 우리는 그 영 안에 계시고 또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의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림과 됴뻤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체계

통제하는 둘째 원칙은 우림과 됴뻤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 아래 있는 제사장 체계이다. 제사장 체계란 무엇인가? 이것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문제이다. 제사장 체계는 주님과 의 교통과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생활과 봉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사장 체계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이렇게 살고 행하며 모든 일을 한다. 우리가 주님과 매일, 매순간 친밀하게 교통할 때 또 이렇게 살아 있는 교통 안에서 살고 봉사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바로 제사장 체계이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 체계를 잃는다면 우리는 통제하는 원칙 중의 하나를 잃는 것이다. 이 통제하는 원칙은 인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정을 위한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있는 주님의 임재는 인도를 위한 것인 반면, 우림과 됴뻤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 아래 있는 제사장 체계는 판정을 위하여 있다.

예를 들어, 두 형제가 서로 말다툼하며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판정에 도달할 수 있는가? 회의를 소집해서 투표로 그 문제를 판정할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는 다만 제사장 체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봉사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있는 한 무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요구된다. 그러한 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고 우림과 됴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결정, 주

님의 판정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우림과 둠뭉에 의해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 체계는 세 가지, 즉 주님과과의 교통,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림과 둠뭉을 포함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만 마지막 항목인 우림과 둠뭉에 관해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히브리어에서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뭉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약 삼십 년 전에 한 히브리인 기자가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둠뭉은 히브리 알파벳 네 글자가 새겨진 보석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 위의 열두 개의 돌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열두 지파의 이름은 히브리 알파벳 스물두 자 중에 열여덟 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네 글자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 네 글자는 둠뭉 위에 새겨졌고 이 돌이 흉패에 붙여졌을 때 완전함과 완성이 있게 되었다. 그때서야 스물두 글자가 있게 되었다. 히브리 알파벳의 모든 글자가 그곳에 있었다. 또 우림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흉패에 붙여진 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뭉은 바로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림과 둠뭉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제사장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흉패의 도움으로 답을 얻었다. 그 기사(記事)에서 히브리인 기사는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글자가 새겨진 한 돌이 빛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글자가 새겨진 다른 돌이 빛난다고 말했다. 대제사장은 돌들이 빛을 낼 때 그 돌들에 새겨진 모든 글자를 받아 적고 그 후에 단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문장을 만든다. 결국 대제사장은 주님에게서 완전한 말씀과 판정을 얻는 것이다. 그 기사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지은 아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었다고(수 7장) 말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제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사장 체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들을 글자처럼 읽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의 빛으로 제사장 체

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에게서 주님의 자녀들의 상황에 관한 어떤 말씀을 받게 된다.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형제님들,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께로 갑시다.”라고 말해 줄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성경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형제들을 읽어 볼 것이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의 흥패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체계가 수행하는 일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결정을 내려할 문제에 관하여 주님에게서 글자와 단어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사도들이 그들의 서신을 어떻게 썼는지 아는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썼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가 좋은 예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많은 문제들, 즉 분열, 징계, 결혼, 부활의 교리 등 거의 온갖 문제들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모든 형제자매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갔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읽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가 주님 앞에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읽었을 때 그 상황의 본질과 답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님에게서 판정과 결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다. 모든 서신서들을 생각해 보라. 사도들이 쓴 모든 책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쓰였다. 모든 서신서들은 사도들이 방에 앉아서 읽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후에 쓴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답변과 말씀을 요구하는 상황이 항상 있었다. 그때 사도들은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는 제사장들로서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문제들을 연구하며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씩 읽어갔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빛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단어와 문장과 생각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말해 주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다.

이것이 통제하는 원칙들 중 하나이다. 통제하는 첫째 원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이며, 통제하는 둘째 원칙은 특별한 두 가지, 즉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기름 부음 아래 있는 제사장 체계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다른 형제자매 때문에 겪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 내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는 나의 영을 사용하여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야 한다. 여러분과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을 모두 주님께로 데려가서 “주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또한 제게 빛을 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 보아야 한다. 말씀의 빛 속에서 여러분과 관련된 문제와 일들을 읽어 보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행동을 읽어 보아야 한다.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은 후 점차로 한 단어 한 단어씩 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에 관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형제들을 인도하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할 기회를 주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다. 때때로 어떤 형제는 주 안에서 형제인 아버지와의 문제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다. 그다음 날 어떤 자매가 역시 교회 안에서 자매인 며느리와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 올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법정에서 재판관을 만나라고 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보여 준 이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가슴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읽어 보라. 먼저 아버지를 읽어 보고, 아들을 읽어 보라.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 하지 말고 말씀의 빛에 의해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국민성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교육 등을 읽어 보라. 이 모든 것을 읽어 본 후 한 요점, 한 요점씩 그에 관한 문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계시해주는 말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 아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자매와 그녀의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 일에 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판정과 결정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정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법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

한 대법원을 대표하는 지방 법관이 필요하다. 이 법관은 우림과 둠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는 제사장 체계이다.

함께 동역하여 주님을 단체적으로 섬기는 한 무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가정 법원이 있지 않은가? 교회 안의 가정 법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의 빛에 의해 모든 형제자매들을 읽어보는 제사장 체계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판정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을 짓는다. 우리의 모든 일과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다. 그것은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나 이 땅의 재판관처럼 조언을 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교통과 기름 부음과 주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성도들의 환경과 성품과 일상생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 봄으로써 되는 것이다.

거룩한 생활의 규율

통제하는 셋째 요소는 거룩한 생활의 규율이다. 이 규율이란 무엇인가? 레위기에는 제물과 제사장 직분과 여러 가지 규율이 나온다.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제물을 다루는 1장부터 7장까지이다. 둘째 부분은 제사장 직분을 다루는 8장부터 10장까지이며, 셋째 부분은 많은 규율을 다루는 11장부터 끝까지이다. 거룩한 생활에 관해서는 온갖 종류의 규율이 있다. 여기서는 그 모든 것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없다. 그 규율들은 참으로 흥미 있고 달콤하며 의미가 가득하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 분별된 것과 세상적이고 속된 것과 분별되지 않은 것에 관한 규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규례 등 많은 규율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규율이다.

이 규율들은 세 가지 작은 원칙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작은 원칙이다.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많은 것들로부터 보

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극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생각은 여러분을 그 일로부터 움츠러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싸우면서 동시에 자신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은 극동에서 인력거를 탄 적이 있었다. 처음에 인력거꾼은 나에게 오천 원을 요구하였고 나는 그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에게만 원짜리 지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만 원짜리 지폐를 그에게 주고 잔돈을 돌려받기를 기다렸다. 그는 주머니 속을 뒤져 본 후 가진 돈이 사천 원밖에 없다고 하며 아주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의 속임수였다. 나는 그와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생각났다. 이 생각은 내가 싸움을 그만두도록 했다. 나는 “됐다. 됐어. 잊어버리자. 천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 인력거꾼과 다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지나친 제한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과 나는 그런 제한을 받아야 한다. 때로 극동에서는 특별히 자매들이 주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 만일 그들이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만 해도, 그 생각은 그러한 차림새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주춤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쉽사리 잊어버리고 마귀의 딸들처럼 옷을 입고 나간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규율들의 첫째 작은 원칙이다.

둘째 원칙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별시켜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별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나는 여러 번 백화점에 갔지만 아무 것도 살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다만 머리를 흔들며 “이런, 내게 적합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나는 분별되었어.”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리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여행하면서 신발 한 켤레를 사려고 한 적이 있었다. 모양이 특이한 신형 신

받은 매우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맞은 구두는 참으로 찾기 어려웠다. 나는 내가 그 신발 중 어느 하나를 신는다면 주님의 자녀들 앞에 서서 말씀을 공급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오, 그 백화점들은 세상적인 것들만 팔고 있었다. 만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백화점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이 할 만한 사업이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셋째 원칙은 주님께서 거룩하시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거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작은 원칙들은 중요한 통제하는 원칙들 중 한 원칙을 구성하며, 이 세 가지 작은 원칙들은 거룩한 생활의 규율들이다. 이 규율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여러분은 이 세상과 분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도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규율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모든 일을 다스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임재는 한 무리인 우리를 위한 인도이다. 우리가 가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는 주님의 임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인도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통제하는 첫째 원칙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제사장 체계의 법정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말씀의 빛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살펴보고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필요한 판정과 적합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통제하는 둘째 원칙이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상 활동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분별되었다는 것과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

으로써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그 좋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준비되고 자격을 얻게 되며,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12 장 땅을 점령하는 법

Ⅳ. 군대 편성

성경: 민 1: 1 4, 17 18, 52 53, 2:1 2, 4:3, 8:23 26, 26:1 2, 52 56, 63 65.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주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누리는 것로부터 제물과 제사장 체계로, 성막으로, 확장된 법궤로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체험으로는 이 정도도 상당히 성장한 편이다. 이제 우리는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 체계 안에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제시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누리는 데서 출발하여 그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진 날까지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장막이 세워진 후에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로 누리게 되었으며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이것이 출애굽기이다.

출애굽기에 이어 레위기에 오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제물들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은 그때서야 제사장의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었고 거룩한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는 레위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첫째 부분에서는 제물을 다루고, 둘째 부분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룩한 생활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레위기 다음은 민수기이다. 민수기에 관한 모든 강해서와 주석들은 민수기 전체가 계수(計數)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방황으로 가득 찬 책임을 보여 준다. 외형만 놓고 볼 때 이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비록 그러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또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민수기는 신성한 군대의 편성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체험들이 있을 후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해 군대로 편성될 수 있었다. 한 무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군대로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은 더 한층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나누어 소유할 사람들이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계수되었다. 첫째로는 전쟁할 군인들로 편성되기 위해 계수되었고, 둘째로는 전쟁을 위한 군대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나누어 상속받을 사람들로서 계수되었다. 그 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민수기에서 우리는 계수나 방황과 관련된 기록들뿐 아니라, 군대로 편성되어 좋은 땅을 상속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영광스러운 사실도 깨달을 수 있다.

어린양부터 군대까지 점점 항목

그렇다면 좋은 땅을 소유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단계들을 열거하고 관찰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속하는 어린양으로 누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

리의 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 단계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첫째 항목을 통과한 것이다. 둘째 항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만나요 매일의 생명 공급으로 누려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도 함께 마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생명 공급으로 누릴 때마다 또한 그리스도를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으로도 누려야 한다. 우리는 만나와 더불어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도 누린다.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런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음료로 누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고, 계속 전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매일 매일 우리의 음식과 생수로 누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한다. 아침에 모일 때마다 서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대신 “식사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자. 나는 그런 인사를 진실로 더 좋아한다. 형제여,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가? 자매여, 오늘 아침에 무엇을 마셨는가? 여러분 중 몇 사람은 오늘 세 번의 식사를 잘 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주님을 찬미하자! 우리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생수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항목을 보자. 여러분에게는 거주하는 성막이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타남과 설명으로서 견고하게 체험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확장인 장막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으로서 체험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린양과 매일의 만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러한 그리스도가 있는 성막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요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자신의 증가,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인 교회를 체험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 있는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갖기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첫째 항목은 쉽게 통과된다. 둘째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셋째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현인 그리스도 자신의 확장, 곧 교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것은 한낱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담아 둘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고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는 지방에 영적인 성막이 세워지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이다. 어떤 시점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전에 여러분이 누린 것은 단지 어린양이요, 만나요, 기껏해야 생수가 흐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였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단계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영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막, 즉 교회가 세워지는 제이 년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야 한다(출 40:2). 이것은 둘째 단계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은 이미 첫째 단계의 첫 해를 시작했다. 이제 둘째 단계의 제이 년을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으로 소유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표현인 성막이 여러분이 사는 지방에 세워지도록 계속 전진해야 한다.

이제 넷째 항목을 보자. 우리가 이곳에 성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모든 제물들로 체험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를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로 체험해야 한다.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사는 지방에는

참된 제사장 체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지금까지의 모든 항목은 다 통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항목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더욱 깊은 체험이다.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생각이나 노선은 항상 점진적이고 언제나 발전하고 있다. 첫째로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꾸준히 향상되고,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깊어진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이 이 다섯째 항목은 정말 통과하기 어렵다고 고백할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단체들이 제사장 체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도시에는 제사장 체계가 있는가? 이 모든 항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누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없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할 수 없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여섯째 항목에 왔다. 우리는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훨씬 더 진보한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한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오, 이것은 굉장한 일이다. 만일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되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은 “주여, 당신을 하나님의 증거인 언약궤로 체험하는 것과 당신의 표현인 그 언약궤의 확장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라고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 점검해 보고, 주님의 은혜로 이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을 만큼 대제사장이신 당신을 체험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쭙어 보라.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배우고 체험하라. 그리스도를 제사장 직분의 생활로 적용하라.

군대가 되기 위한 자격

제사장 직분 다음으로, 우리는 군대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이익을 위해 싸울 영적 군대로 편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된다. 첫째, 군대로 편성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족보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이 족보는 육신에 따른 혈통이 아닌 영적인 계보이다. 육신에 따른 족보는 여기에서는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족보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들의 계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를 밝혀야 했고, 그들이 어느 가족,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야 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없고 그들의 계보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들은 물러가야 했다. 군대로 편성될 수 없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 영적인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계보를 내보이라. 적어도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거듭남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인가? 우리는 거듭난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나는 한 어린 형제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 그는 열세 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홉 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는, “제가 성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홉 살 때 성령을 받았습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적 계보와 같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출발점이 있었다. 이것이 군대로 편성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다.

둘째로, 출생 즉 생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십 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민 1:3). 군인이 되려면 장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갓난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십 세 이상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싸울 만큼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 여러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가지

고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보인다. 그들은 너무 어리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족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라지는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굉장하다고 여긴다.

어느 날 한 형제의 손녀가 내게, “저를 아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큰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세 살밖에 안 되었지만 자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아이를 전쟁에 내 보낼 수 있겠는가?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과 증거를 위하여 전쟁할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일정한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 표준은 결코 낮출 수 없다. 우리는 그 표준까지 성장해야 한다. 나는 성장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늙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늙으면 제대하게 될 것이다. 늙으면 영적인 봉사에서 은퇴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전진만 있어야 한다. 결코 퇴보는 없어야 한다. 이십 세에서 육십 세까지는 군대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체험이 많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퇴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지는 않고 늙어버렸다. 그들은 애늙은이들이다. 우리는 군대로 편성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생명이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둘째 자격이다.

셋째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집안을 따라 그들 자신의 깃발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면 여러분은 샌프란시스코의 기(旗) 아래 머물러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로스앤젤레스 출신이라면 로스앤젤레스의 기 아래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여러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지만 그 도시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 이사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되돌아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집의 기 아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갈망이나 개인적인 선택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개인적인 선택이란 없다. “나는

유다 족속에서 나왔지만 이 족속을 좋아하지 않는다. 베냐민 족속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유다 족속의 기 아래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의 욕망은 제한받아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보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가! 유다 족속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냐민의 깃발 아래 와 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의 자녀들은 므낫세 지파에게로 왔다. 모든 것이 혼돈이다.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편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자라야 하며,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엄격한 교훈이다.

넷째로,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그림을 보라. 중앙에는 언약궤와, 언약궤의 확장인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막 둘레에는 레위 족속이 진(陣)을 쳤다. 그 다음 둘레에는 다른 열두 지파가 모두 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질서를 지켰다. 각 족속에게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 어떤 족속들은 동편에 진 치도록 정해졌고, 어떤 족속은 남편에, 또 다른 족속은 서편에, 그리고 어떤 족속은 북쪽에 진 치도록 정해졌다. 주님의 명령은 순복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질서를 지키려면 우리는 순복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순복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편성될 수 없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 하나님 왕국을 위해 싸울 군대로 편성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순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신성한 질서가 있게 될 것이며 자동적으로 군대가 편성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땅,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즉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만나로, 생수가 흐르는 반석으로, 언약궤와 성막으로, 제물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누리고 최종적으로는 장성하여 군대로 편성되는 것이다.

다섯째 자격은 우리가 항상 신선하고 젊어야 한다는 것이다. 늙으러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두 번째로 계수할 때, 첫 번째 계수에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늙어 버렸다. 그들은 다시 계수되어야 했다. 노인들은 제외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군대로 편성되어 좋은 땅을 함께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언제나 젊

고 신성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군대로 편성된 것은 아니었다. 여자들에게는 자격이 없었다. 성경에서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을 의미한다(벧전 3:7). 그들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또 이십 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도 자격이 없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군대로 편성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중 모든 형제자매가 다 군대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단 둘이나 셋, 넷이나 다섯, 혹은 아홉이나 열명만이 자격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참으로 생명이 성장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군대가 편성될 수 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싸울 군대가 되기 위하여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가 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그림을 보라. 한 가운데 언약궤와 성막이 함께 있다. 그 다음, 성막 둘레에는 제사장이 있다. 그 다음, 제사장을 둘러싼 군대가 있다.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움직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영적 교통에 달려 있다. 제사장 직분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잃어버린다면 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민수기 4장 3절, 30절, 35절, 39절, 43절에서 제사장의 봉사에 관련된 ‘봉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수기 26장 2절에 있는 군대의 전쟁과 관련된 ‘싸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하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그들의 봉사를 다해야 했지만, 그들의 봉사는 전쟁이라고 불렸다. 한편으로 그들은 봉사하지만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사장의 봉사는 곧 전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제사장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군대가 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군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을 지속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즉 군대는 언제나 제사장 직분에 의하여 유지된다.

우리에게 영적인 계보가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생명은 충분히 성장했는가?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갈망이

나, 개인적인 선택이 제한받도록 하겠는가?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순복하여 질서를 지켜야 하고 또 언제나 신선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고 군대로 편성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한 항목 한 항목 점검하며 제사장에 관한 다섯째 항목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섯째 항목에 합격할 수 없다면 여섯째 항목에도 합격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적용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를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보하여 하나님 왕국을 위해 전쟁하는 주님의 군대로 편성될 수 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군대에서 봉사하려면 나이가 이십 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제사장 직분에 요구되는 나이는 삼십 세 이상이다. 군대에서의 봉사 기간은 이십 세에서 육십 세까지인 반면, 제사장의 봉사 기간은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이다. 군대에 있거나 제사장 직분을 얻으려면 어떤 퇴보도 없이 생명이 완전히 자라야 한다. 제사장 직분과 군대는 모두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자라지 않으면 제사장도 군대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생명의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 일정한 수준까지 성장해야만 제사장 직분의 책임을 맡을 수 있고 군대로 편성될 수 있다. 그때에야 비로소 영적으로 우리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삼고 성막을 그 확장으로 삼는 백성으로 편성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순복함으로써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소유할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땅,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였다. 이것이 그 땅을 소유하는 길이고,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기록은 좋은 땅을 소유하는 단계를 다룬다. 모두 여섯 단계가 있는데 처음 두 단계는 비교적 들어가기 쉽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네 가지 항목인데, 이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성막과 제물들과 제사장 직분과 군대의

편성이다.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체험하는 데서부터 제사장 직분과 군대에 대한 체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생명 안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깊이 훈련받자.

제 13 장 땅을 소유하는 법

V. 반대 요소들

성경: 레 10:1 3, 민 12:1 2, 9 10, 15, 13:25 14:10, 16:1 3, 12 14, 21:5 6, 25:1 5, 26:63 65, 고전 10:1 6, 히 4:11

이 장에서는 그 땅을 소유하는 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 보다는 소극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과 개인주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좋은 땅을 소유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누구도 개인으로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몸의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야만 하겠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첫째로 세운 것은 바로 성막이었다. 이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단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좋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건축되어야 하고, 성막인 한 몸으로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일종의 전진하는 과정, 즉 지속

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았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다. 발전하고 전진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첫 출발을 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케이시며 장막으로 증가되신 지점에 도달한다. 이 언약궤의 증가, 확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함께 건축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자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표현, 곧 한 몸으로 건축된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누려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같이 보인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누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누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는 나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어디에 있든지 홀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단계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더욱 더 누림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결합되고,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 마흔여덟 개의 널판들은 분리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분리된다면 그들 가운데에는 결코 그들의 내용인 언약궤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증거인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속하는 어린양이나 매일의 만나보다 더 견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면,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로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덮개 아래 있는 성막인 한 몸으로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단계에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무언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가 바로 언약궤의 확장인 성막이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여,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결코 멀리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로 조금씩 누릴 수 있고 또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으로 누릴 수 있다. 정말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런 정도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 진보하여 그리스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누릴 수는 없다.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궤로도 누릴 수 없다. 언약궤와 땅을 비교해

보라. 언약궤의 크기와 그 땅의 거대함을 생각해 보라.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그 땅은 측량할 수 없이 크며 끝없이 광대하다. 그 땅의 크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요, 너비요, 높이요, 깊이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누릴 수 없다면 땅으로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건축되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누릴 수 있다. 분리된 널판으로서는 결단코 계속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의 건축에 있어서 모든 숫자와 크기는 언제나 5와 3을 포함한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 노아의 방주, 성막, 솔로몬의 성전,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 등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모든 일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모든 건축물은 기본 숫자인 5와 3을 포함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3이라는 숫자는 부활하신 삼일(三一)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리고 5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인 4와 창조자 한 분을 더한 것이다. 즉 피조물과 창조자가 합해져 5가 된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면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숫자 5는 함께 하나로서 책임을 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대표한다. 성막의 모든 치수에서 5와 3, 이 두 숫자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이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 사실에 주목해 보자. 널판의 너비는 삼 규빗이 아니라 일 규빗 반, 바꿔 말하면 삼 규빗의 절반이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다만 반쪽이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과 결합되어야 한다. 주 예수는 항상 그분의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셨다. 사울과 바나바도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함께 보냄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봉사했다. 언제나 둘씩이었다. 만일 혼자 간다면 여러분은 다만 반쪽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형제가 집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는 반쪽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따라 들어올 때 또 다른 반쪽이 온다. 그들이 함께 앉을 때 완전해진다.

여러분은 자신이 완전한 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다만 반쪽일 뿐이다. 여러분은 몸 안에서 동역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결코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이라면 망쳐질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교훈을 배우기가 다소 어렵다. 독립과 개인주의

가 매우 많이 강조되고, 주님의 자녀들은 이것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독립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독립적이라면 영적 자살을 범하는 것이다.

나의 귀가 나의 몸에게, “나는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독립의 결과는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귀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론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실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어야 한다. 귀는 피부 한 부분에 연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의 피부는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여전히 또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는 몸을 갖게 된다.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실재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훌륭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실재이다.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새로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누구와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 된 어떤 형제나 형제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은 몸의 머리에 연결되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발이 그런 대답을 한다면 발은 틀림없이 그릇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몸의 맨 아랫부분에서 벗어나 머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배가 아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짝이 되어 함께 가자고 요구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 함께 가라고 요구하시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사람, 즉 머리 이외의 어떤 지체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어디에 가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러나 “형제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형제님과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시카고에 산다면 시카고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실지로 그렇지 못하다. 만일 여러분도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형제자매들과 명확하게 연결되고 실제

적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여기에 마흔여덟 개의 널판으로 된 성막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첫째 널판에게 어느 널판과 연결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 널판은 주저하지 않고 둘째 널판과 연결되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면 둘째 널판에게 어느 것과 연결 되었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널판은 즉시, 한편으로는 첫째 널판과 연결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셋째 널판과 연결되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와 연결된 널판들의 이름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모든 널판들은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님의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결합된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과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지방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난 삼십 년 동안 다른 형제자매들과 참으로 연결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또는 사탄이 나에게 누구와 연결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즉시 어떤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바로 이리이러한 주님의 형제자매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오, 이것은 대적을 두렵게 하는 일이다. 대적은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디에서든지 참으로 함께 연결된 두세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은 온 우주를 놀라게 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실제로 연결된 두 사람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 그들은 결코 다시 개인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좋은 땅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혼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껏해야 주님을 어린양이나, 만나나, 반석으로 밖에 누릴 수 없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끝나게 된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누리고 싶다면 많은 널판들과 함께 연결된 널판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성막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언약궤, 곧 하나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확장인 성막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이 성막 안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막

에서 끊어져 밖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고하게 누리는 일에 관한 한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을 때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았으며, 또 광야에도 계시지 않았다. 성막 즉 '회막' 안에 계시었다. 오늘날 영적 실재에 있어서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건축되어 이룬 그분의 거처 안에 계신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언약궤로 누리고 싶다면, 성막이 되기 위해 연결된 널판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어린양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이시다. 만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이시다. 언약궤이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성막 안에 계신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이십 년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로 누렸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로 누리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속에는 만족이 없다. 이십 년 전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로 누렸을 때에는 참으로 만족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십 년 전에 그들은 매우 신선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 본다면 그들에게는 낡은 것만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동일한 옛날이야기를 아직도 말하고 있다. “오, 주님은 날마다 내게 일용할 만나가 되시니 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하며 동일한 옛날 이야기만 반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서는 낡은 냄새만 맡을 수 있고, 얼굴에서는 주름살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것은 아주 좋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낡은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다. 그것은 신선하지 못하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과 나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 더 진보해야 한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과 끝없이 깊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누림의 신선함과 달콤함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누리지만 이 년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그리스도만 누린다면, 우리는 낡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일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로, 설명으로, 나타남으로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낡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달콤한 향기는 맡지 못하고 썩은 냄새만 맡게 될

것이다.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안녕!’ 하고 말한다면 참으로 기쁠 것이다. 생명의 신선함과 새로움이 그 말 속에 있다. 그러나 스물두 살 청년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은 낡은 것이다. 그 말에는 신선함이나 새로움이 없다.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궤로 누리고자 한다면, 개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적이라면 여러분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굴복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떤 자녀들과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도시에 있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방에서, 내가 누구와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야 할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연결되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들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방에 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순복해야 한다. 아마 주님은 어떤 특별한 형제를 여러분에게 데려와서 그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바로 네가 연결되어야 할 형제이다.”라고 알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주님, 그는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 사람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이다.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자, 가서 그를 받으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 교훈을 배우라.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며, 주님의 참된 건축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나는 현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매우 싫어한다.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순복도 없고 건축도 없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채울 것이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주님의 자녀의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건축도 없고, 실제적인 합일도 없고, 진정한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들과 계속 모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과

도 연결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은 모이고, 모이고, 또 모이지만 여러분은 다만 개인주의적인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건축도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이상 누리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을 더 체험하는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은 끝난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합될 때까지는 주님을 체험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여러분과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지방에 성막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훨씬 더 견고하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 대로, 성막 다음에는 즉시 제사장 체계가 나온다. 제사장 직분은 어떤 한 사람의 사역이나 봉사가 아닌 몸의 봉사이다. 어떤 사람도 개인으로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구약에 그러한 제사장 체계는 없다. 제사장 체계는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몸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없다.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형제자매들과 연결된다면, “우리들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뉘어 많은 개인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실재의 그림인 구약을 보라. 단 한 사람도 혼자서는 제사장으로서는 행동할 수 없다. 제사장 체계는 하나의 몸이다.

다음에 우리는 군대에 이른다. 여러분은 혼자서 군대를 구성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없다. 나뉜 많은 개인들로서는 결코 군대가 될 수 없다. 군대는 한 집단으로 형성되어 함께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군대를 이루기에 알맞은 숫자인가? 군대를 형성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두세 명의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나를 초대한다면 나는 기꺼이 승낙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조금 전한 후에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더 많은 회중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집회를 예비해 놓았다면 나는 멈추지 않

고 몇 시간 동안이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두세 명의 형제자매들로 결코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이 왜 세계에서 첫째가는 나라인가? 왜 최강국인가? 연합된 주들이 오십여 개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주리(Missouri) 주와 아이오아(Iowa) 주와 일리노이(Illinois) 주 같은 두세 개의 주만 있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약하겠는가! 그러나 한 정부 아래 연합된 오십여 개의 주가 있으므로 이 나라는 막강한 것이다.

오, 간교한 대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얼마나 해치려 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토록 많이 있지만 군대는 하나도 없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찾기로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우 약하다. 미국이 강한 것은 그들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나라 전체나 전 세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한 도시나 지역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합일도, 조직도 없다. 몇몇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합일이나 조직도 반대한다. 나는 인간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건축물, 즉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참되고 실제적인 합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도 두셋, 저기에도 두셋,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군대로서 주님의 자녀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 두세 사람이 아닌 한 무리의 주님의 자녀들, 즉 충분히 많은 인수로 싸워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과의 합일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주 안에서 간청한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버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위한 참된 표현을 갖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한 참된 표현 이외에는 어떤 것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자녀들과 연결되어 막강한 군대로 편성되자.

나는 이 문제에 깊은 부담을 느낀다. 이 부담이 너무나 커서 때때로 내 정신이 아니다. 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의 온 마음이, 나의 전 존재가 이 문제에 바쳐졌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전쟁할 군대로 편성하시게 하자. 사탄과의 전쟁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말만 하지 말라. 전쟁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전쟁이다. 바로 여기에 전쟁이 있다. 여러분은 싸워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순복 시킴으로써 출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순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편성될 수 없고, 함께 건축될 수 없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반드시 순복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참으로 반역의 시대이다. 온 세계는 거역으로 가득 차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부에서 모든 사람이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전쟁하기 위해 군대로 편성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는 순복하기를 배워야 한다. 온 세상의 조류와는 반대로 우리는 순복을 배워야 한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순복시키고 '예.'라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아침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고 '예.'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싫어!'라고 말하기가 아주 쉽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싫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첫 말이 '싫어.'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입으로만 거짓으로 '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예.'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순복의 '예.'가 되어야 한다. '예! 형제님' '예! 자매님.'이라 말하며 여러분 자신을 그들에게 순복시키라. '예.'라고 말하기를 배우라. 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큰 도시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군대는 어디에 있는가?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제사장 체계는 어디에 있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합일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순복도 없고, 편성도 없고, 건축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장 체계도 없고, 군대도 없다. 이 땅 위에 주님을 위한 참된 거처가 없

는 것이다. 주님께 대한 진정한 봉사도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된 전쟁도 없다. 왜냐하면 참된 군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회복을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순복하여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군대는 항상 제사장 체계 아래 있어야 하고 제사장 체계는 항상 성막과 함께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간다. 언제든지 성막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무리가 있다. 또한 제사장 무리 둘레에는 군대가 있는 법이다. 이 성막과 제사장 체계와 군대는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참 그림이다. 만일 성막이 없다면 제사장 체계도 없다. 제사장 체계가 없다면 군대도 없다. 군대는 제사장 체계에 달려 있고, 제사장 체계는 성막과 관계있다. 그러면 성막은 무엇인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만일 성막이 없다면 주님의 임재도 없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어디에 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분의 임재는 성막 안에 있다. 우리가 성막에 있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막이 없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다. 주님의 임재는 떠나버린 것이다.

성막, 제사장 체계, 그리고 군대!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없다. 아직도 부족하다. 여러분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성막과 제사장 체계와 군대의 체험이 많아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은 없다. 그것들은 모두 단체의 몸과 관계된 것이다.

다른 불

성막과 제사장 체계와 군대를 유지하려면 개인주의 이외에도 다음 사항들을 피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것들은 큰 해를 주는 것들이다. 그 첫째 것이 '다른 불'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러서는 안 된다. 다른 불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타고난 열심이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감정의 열심이요, 타고난 마음의 열정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가져온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고 제사

장 체계를 해친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 그들은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불이었다. 주님은 향이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향을 피우는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열정과 열심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열심은 십자가에 의해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반역

우리가 피해야 할 둘째 사항은 권위에 대한 반역이다. 미리암과 아론, 즉 모세의 누나와 형은 그 당시의 권위자였던 모세를 거역했다. 모세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을 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결점이었으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권위를 인정해야 했다. 모세가 바로 그들의 권위였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과 제사장 체계와 군대의 편성을 망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도자로서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상징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배역하지 않기를 배우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의 도시에 주님의 몸의 표현인 지방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서너 명의 인도하는 형제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백 퍼센트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결점이 있는 법이다. 여러분은 장로들에 대하여 눈을 너무 크게 떠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열어야 한다. 여러분의 눈을 장로들에게 고정하여 그들을 조사하려고 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역자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망치게 될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옳은 말인

가, 틀린 말인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들은 옳았고 모세가 틀렸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그들에게 고소할 근거를 준 것이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이 근거를 잡고 권위를 거슬러 배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그들은 즉시 문둥병에 걸렸다. 나중에 치료는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의 종들을 거슬러 배역한 결과 문둥병에 걸리게 된 많은 사람들을 보아 왔다. 주님의 종들이 옳았던가? 나는 이것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각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의 결점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시험이다. 그 결점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종들의 선함이 아닌 결점들에 의해 시험을 받을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을 간직하라. 이것은 하나의 경고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다고 느낄 때가 오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이 한 일 좀 봐!”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비난하고 반역한다면 여러분은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가장 더러운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일 것이다. 여러분은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처럼 광야 길가에서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은 결단코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없다.

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여행 중에, 보다 대규모의 또 다른 배역이 있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배역하기 위해 이백오십 명의 족장들과 함께 들고 일어났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거의 온 회중에게 죽음을 불러 왔다. 그 배역의 결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합일은 손상되었고, 제사장 체계도 손상되었고, 주님의 백성의 군대 또한 손상되었다.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경고가 필요하다.

나는 여러분 중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증거를 위하여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역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만간 그것은 시험받을 것이다. 우리가 배역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끊어질 뿐만 아

니라 어느 정도는 증거와 제사장 체계와 군대를 해칠 것이다.

불신

우리가 피해야 할 셋째 사항은 불신이다. 불신은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사람들이 가져온 악한 보고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 땅이 대단히 좋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도시는 요새화되고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결단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정복하려고 하다가는 완전히 패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 여러 차례, 악한 자 대적은 우리 안에서 똑같이 말한다. 그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분은 좋고 놀라운 분이지. 그렇지만 너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이 장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여러분의 귀에 이런 말을 속삭일까 염려된다.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 땅은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곳이야. 결코 미치지 못할 거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작은 마귀는 죽음의 독약을 주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결코 그를 믿지 말라. “그 사람들은 거인이야. 그 도시는 하늘까지 요새화되어 있어. 너는 패배할 거야.”라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히브리서 3장은 이것을 가리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 붙잡힌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주님께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주님, 저는 선한 마음,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신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또 꿈꾸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을 따르자.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두 올라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모든 불신을 피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나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읽은 후에도 여러분 중 몇 명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될까 염려된다. 아마 그것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후에 여러분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누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난 안 돼. 난 결코 누릴 수 없을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다. 참된 분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불신을 떨치도록 항상 기도하라!

참으로 여러분의 타고난 힘으로는 좋은 땅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고 그분을 모든 것 위의 머리로 삼은 능력만이 여러분을 좋은 땅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강건한가?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그 영 안에서 강건하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을 믿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땅을 취해야 한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을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제는 너무 어렸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 확신을 갖고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성령께서 매일 매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전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싸워야 할 몇 번의 전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대적에게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그 전쟁이 안식일 것이다. 전쟁은 적에게는 패배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다. 대적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먹으러 갈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고파질 것이다. 매일의 만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대적을 삼켜버려야 한다. 대적은 우리의 음식이 될 것이요, 그를 삼켜버릴 때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과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전쟁을 하며 대적을 삼켜버려야 한다. 삼키면 삼킬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만족될 것이다. 패배한 대적은 가장 좋은 밥이요, 가장 맛있는 밥이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땅을 정복하자. 성 전체를 맛있는 요리로 먹어 치우자. 우리는 모두 완전히 만족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관계

그러나 대적은 간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 가장 간교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연합되어 간음하도록 하기 위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사용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를 망쳐 놓는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계라면 어떤 것이든지 경계해야 한다. 대적은 우리를 손상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들어와 우리를 속이고 세상적인 것과 연합하게 할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해 보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통함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 세속적인 세계이건 종교적인 세계이건 만일 우리가 세상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불평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처럼 주님을 거슬러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무리 길이 어렵더라도, 어떤 곤란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자.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결코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 결코 배역하지

말라. 믿지 않는 악심을 버리라. 어떤 세상적인 것과는 연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코 주님을 거슬러 불평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제 14 장 좋은 땅에 들어감

성경: 수 1:1 6, 4:1 3, 8 9, 5:2, 7 9, 10 12, 13 15, 6:1 11, 15 16, 20, 골 2:12, 3:1 5, 엡 6: 12 13, 고후 10: 3 5.

이제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양을 누렸고,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매일의 만나와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으로 그리스도를 누렸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궤, 즉 하나님의 증거로 체험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장과 표현으로 건축되어 성막이 된다. 우리에게 성막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막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서서 함께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덮인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견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있고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더욱이 우리는 제사장 체계 아래에서 군대, 즉 그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전쟁할 신성한 군대로 편성되었다. 우리는 대적과 싸워 그를 패배시킬 준비가 완결되어 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림으로써 준비되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땅,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작은 어린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이르게 된다. 그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렸고 그리스도를 소유했

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더 풍성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더욱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 두신 목표는 바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이제 군대로 편성되어, 영광스럽고 신성하며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취해야 한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 땅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확신 곧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 땅은 지금 우리 소유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여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바로 오늘 일어나 그 땅을 소유하러 가자! 주님을 찬양하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그 땅을 차지하자! 결코 ‘내일’ 이라고 말하지 말라. 불신에는 항상 내일, 내일, 내일이 있다. ‘내일’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믿음에는 내일이 없고 항상 오늘만 있다. ‘오늘’은 우리의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계속 전진해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둘째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누린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었고, 장사지낸바 되었다. 우리에게 는 이 사실을 잘 나타내는 뛰어난 찬송이 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은 '장사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장사되었다'를 크게 써서 침실에 걸어 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또 한 장을 써서 식당에 걸고, 또 하나는 거실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엌에 걸라. 방마다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라고 되어있다. 나는 이렇게 장식된 집을 본다면 참으로 기쁠 것이다. 장사되었다니 이 어떠한 안식인가! 이보다 더 좋은 안식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다. 요단강은 그들의 매장지였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넜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요단강에서 물을 통과했다. 그것은 홍해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교회는 우리에게 침례를 주었다. 즉 우리는 장사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래지 않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버렸다. 이것은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까지 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의 중심으로 소유했고, 그리스도의 표현인 성막으로 건축되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 땅을 소유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된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장사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홍해와 요단강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장사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은 다 그곳에 장사되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장사되었는지 아는가?

나의 고향에서는 사람을 장사지낼 때 그의 모든 소유물도 함께 파묻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장사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전에 우리를 속박했던 세상의 모든 군대와 모든 세력이 다 장사되었다. 그것이 홍해의 실재이다. 이제 여기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세력이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또한 장사되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그림이다. 언약궤와 제사장 체계가 먼저 강에 들어가 강 한 가운데서 머물러 서 있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신 주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체계와 함께 죽음의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랐다. 모든 백성이 강 밑바닥까지 내려가 바로 그 지점을 통과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다. 열두 명, 각 사람은 언약궤가 서 있던 강바닥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요단강 건너 편, 즉 좋은 땅으로 그 돌을 가져갔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다. 옛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타고난 옛사람들이 아닌 부활한 사람들이다. 오직 부활한 사람들만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소유할 수 있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타고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 위에서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부활하였다! 우리는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졌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어떤 일을 했다. 그는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언약궤가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에다 그 돌들을 세워 놓았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사지낸 기념으로 그 돌들을 그곳에 세워 놓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에 묻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되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이 성취된 후 언약궤가 제사장 체계와 함께 요단강에서 나

왔다. 우리가 모두 매장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나오신 것이다. 그분은 먼저 들어가셨다가 마지막으로 나오신 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먼저 나왔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죽음을 완성하였고 이 죽음이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죽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장사되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근거 위에 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곧 좋은 땅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함으로

셋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것을 믿은 후에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割禮)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육체를 죽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육체의 지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할례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이렇게 실행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자신이 죽고 장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지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육체의 지체들에게 적용하여 육체에 속한 지체들을 죽음에 돌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고 말하며, 3장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깨닫는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육체의 지체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

그 땅의 소산물을 누림으로

넷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근거 위에서 우리 지체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자마자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을 누린다. 우

리는 그 땅, 곧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소산물을 누린다. 만나는 멈추고 그 땅의 소산물이 만나를 대신한다. 큰 그리스도께서 작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신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작은 그리스도, 즉 만나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그리스도는 중단되었다. 이제는 훨씬 더 크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땅,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만나를 누리고 있는가, 그 땅을 누리고 있는가?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아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누리고 있을 것이다. 또 우리들 대부분은 주님을 매일의 만나로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의 소산물은 만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의 체험은 어떠한가? 아마 여러분 중 몇 사람은 대답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로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땅의 소산물로 누리는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 땅의 소산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장사됨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장사되고 이제 부활의 입장 위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가?

가령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아주 특이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자. 이 특이한 사람은 항상 내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도록 해 준다. 주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로 그를 내게로 인도하셨다. 주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를 대하려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항상 필요하다. 가령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여 나를 아주 속상하게 했다 하자. 나는 매우 불쾌해서 화를 냈다. 그리고 나서 내 방으로 돌아온 후에 나는 양심에서 죄책감을 느껴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실패했습니다. 패배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받은 후 나는 앙욕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누림이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작은 만나로 누린 것이었다. 나는 만나를 누린 것이다.

어느 날 바로 그 사람이 또 다시 나를 괴롭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이번에는 부활의 입장을 취하여, “주님, 저는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입장 위에서 나의 영을 사용하여 내 지체들을 죽음에 넘깁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화가 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아주 기뻐다. 나는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특별한 형제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내 지체에 주님의 죽음을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신선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체험이었는가? 이 체험은 그리스도를 만나로 체험한 것과는 아주 달랐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좋은 땅의 소산물로 체험한 것이었다. 둘 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었지만 서로 다른 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첫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작은 만나로 누린 것이고, 둘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그 땅의 풍성한 소산물로 누린 것이다.

전쟁을 함으로

다섯째로, 우리는 장사되었고 부활의 입장 위에 있으며 주님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뿐 아니라,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대적과 전쟁을 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대적과 그의 악한 영들은 아직도 그 땅을 빼앗아 점령하고 있다. 여러분과 나는 땅 전체를 소유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영에서는 즉시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실재를 깨닫게 된다. 이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의 참소 때문에 주님의 자녀 중 극소수만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닫고 있다. 바로 오늘까지도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하신 것을 가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할 매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이 전쟁, 바로 이런 전투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는 전투가 놓여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영광스러운 장관, 대장

이신 그리스도의 이상(異象)을 본다. 그분은 이 군대에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상이 필요하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러한 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만 그가 앞에 놓인 전쟁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땅의 소산물을 누린 후, 즉시 그들 앞에 적과 여리고 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뚜렷이 보았고 전쟁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 계시하셨다고 믿는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상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받았다. 그때 여호수아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 자신께서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서 앞서 나아가고 계신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확신이 필요하다.

몇몇 사람들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자마자 영적 전쟁의 필요를 깨달았다고 증언한다. 그들은 적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아직도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을 빼앗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누가 그 땅을 위해 싸울 것인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린다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서는 군대 대장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이상을 보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군대의 맨 앞에 계시며,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전쟁하는 법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은 육체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숫양의 뿔이다. 우리는 전장(戰場)에 가지만 평화의 도구를 가지고 나간다. 우리는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간다. 숫양의 뿔은 곧 평화의 무기로 전쟁을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무기는 철로 만들어진 칼이 아니라 숫양의 뿔이다. 뿔로는 죽일 수 없다. 뿔은 지극히 평화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뿔이 전쟁에서 무기가 된다. 뿔은 불어서 평화

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사용해야 할 무기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싸운다.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가?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방법이었다. 군대의 일부가 앞서 가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일곱 제사장이 따라갔다. 그리고 맨 뒤에는 군대의 다른 일부가 있었다. 바꿔 말하면 앞뒤에는 군대가 있었고 중앙에는 숫양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리고 성을 행군하며 돌았고 제사장들은 행진할 때 숫양의 나팔을 불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림이었다. 그 성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안팎으로 성문을 닫아 버렸다.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매일 매일 육십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양각 나팔을 불며 그 성을 돌아 행진했다. 맨 앞에 하나의 사단이 갔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그리고 맨 끝에는 나머지 군대가 따라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쟁한 방법이다. 여리고 성에는 그들을 웃으며 경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일이 세상에서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고 옛새 동안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일곱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시 받은 대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명령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성을 돌고 난 후에 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합성을 질렀다. 그 전에는 조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승리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여러 번 조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사장 체계가 나팔을 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제사장 체계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제사장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가법계 말해서는 안 된다. “오, 우리는 교회의 터 위에 서 있다! 오, 우리는 지방 교회이다. 우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경솔히 말한다면 거기에는 제사장 체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 체계가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다른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때, 여러분과 나는 합성을 질러야 한다. 우리는 큰소리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 적은 우리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전쟁은 일인가 아니면 누림인가? 참으로 그것은 일이 아니라 누림이다. 그것은 안식과 만족이기도 하다. 그것은 전쟁이요, 싸움이요, 전투이지만, 또한 즐거움이요, 안식이요, 만족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얻는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분리된 개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군대라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고 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적이 혈과 육, 곧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공중에 있는 영적인 세력,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이다. 우리를 거스르고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요,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주님에게 신실하고 또 주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다면 우리에게 관한 많은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극심한 반대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 말들은 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의 패배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여리고는 분명 우리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간 곳에서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대한 악한 소문이 없는 것이 정말로 두렵다. 그러나 만일 소문과 비판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악하게 말한다면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

님 이곳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것이다. 어리석은 말, 터무니없는 풍문, 나쁜 소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바로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표시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의 계략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것이다. 그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양각 나팔이다. 나팔을 불자. 숫양의 뿔을 불자. 십자가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모든 대적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다.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다. 이것이 믿음과 안식과 누림 안에서 좋은 땅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좋은 땅에 있는 성을 하나하나, 한 장소 한 장소 점령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안식하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팔을 부는 것뿐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알맞은 때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외칠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 성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길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은 장사된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입장을 취하라. 땅에 속한 모든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라. 성도들과 함께 만유를 포함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증언하라. 그러면 적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는 적을 박살내고 평화스럽게 안식과 만족을 갖고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적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승리를 누리며 승리를 선포하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승리자
 숨 쉴 때마다 말하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
 죄와 사망 정복하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승리자
 어느 곳에 가든 말하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
 모든 대적 정복하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승리자
 그러므로 용감히 행하리라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강하게 기도하며 가겠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승리자
 주께서 우리의 길 여셨으니
 더 이상 패배와 두려움 없고
 우리의 이상 흐려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승리자
 곧 그의 음성 들리리라
 “정복자들아, 이곳에 올라와
 승리한 왕과 함께 있으라.”

제 15 장 그 땅에서의 생활

성경: 신 12:1 8, 20 21, 26 27, 14:22 23, 16:16 17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이미 소유했다 하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 모든 적들을 패배시키고 굴복시켰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먼저 그 땅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그 땅은 좋다. 너무나 훌륭하다. 첫째로 광대하다는 점에서 좋고, 둘째로 높다는 점에서 좋고, 셋째로 풍성하다는 점에서 좋다. 우리는 그 땅의 풍성을 자세히 보았다. 물이 흘러넘치며, 온갖 식물이 자라고, 채소와 동물과 광물질이 풍부하다. 우리는 또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 유월절 어린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풍성한 체험을 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땅에 이르렀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좋은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주님의 종인 모세가 신명기를 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성막을 소유하고 있었고, 제사장의 봉사가 있었으며, 군대로 편성되어 동역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다음 단계는 들어가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인도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이 준비를 마치는 단

계까지 인도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으나 모세 자신은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주님은 그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 주님의 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모세는 그들의 장래를 지극히 관심하였고, 특별히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한 후의 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한 후 어떠한 생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마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말로 권면하는 나이 든 아버지와 같았다. 모세의 말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충고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놓은 부담이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앞에 있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서 다음의 일을 다루고 있다. 순서로는 앞에 있지만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뒤에 있다. 여호수아서는 강을 건너는 것, 전쟁을 하는 것,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적으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 등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을 다룬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 땅을 소유한 후 그 땅 안에서의 생활을 다룬다. 바꿔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누리는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했다. 이제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점령하는 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은 후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을 누리는 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또한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

그러면 그 좋은 땅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 생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다. 그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산업에 대해 많이 말한다. 사람들은 산업에 대한 많은 주제를 연구하고 산업을 위하여 사업계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며, 어떤 도시들은 산업을 위해 설계되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모든 것

은 산업을 위한 것이다. 국가들마저도 산업 성장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산업이 있지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한 가지 산업, 즉 그리스도만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공학을 연구하고 있다. 매일 매일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탐구하며 일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분야에서 힘써 연구하고 실험하며 실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령의 빛 비춤을 받고 매일 속사람이 부활 능력에 의해서 강건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바꿔 말해서,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나를 설교자라고 말하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럽게 느낀다. 또 나를 소위 목사라고 알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직업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하게 될 때 여러 번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다. 때때로 나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일이십니다.”라고 대답하여 그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이 나에게 무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물 때 나는 “나의 회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입니다.”라고 답변을 한다. 그러면 대개 그들은 그리스도 주식회사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나는 다만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내 사업이라고 말해 준다.

학생들인 여러분은 공부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산업이다. 트럭 운전사인 여러분은 트럭 운전이 여러분의 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의 참 직업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분만을 위해 일해야 한다. 가정주부인 여러분의 참 일은 집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좋은 땅을 소유한 이후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

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이요, 주님을 대량 생산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을 사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있다. 많은 농부들은 과목(果木)을 기르고 과일을 생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꾸며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농장에서 불철주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일은 우리에게 안식이다.

좋은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적들을 굴복시킨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오직 그 땅에서 수고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을 가꾸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땅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생산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좋은 땅이 여러 면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다. 그러나 그 땅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땅의 풍성이 산출되고 충분히 생산 되겠는가? 풍성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떠한가? 부요한가, 가난한가? 우리는 기독교가 정말로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하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빈곤 가운데서 천박하게 행동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려 하지 않는다. 저 현명한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읽어 보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늙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6:9-11).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이토록 부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진실로 미국에 지극히 풍성한 땅을 주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땅의 풍성을 산출하고 충분한 부(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해 왔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세상 산업에는 너무나 분주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게으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땅을 경작해야 한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오늘 아침 말씀을 기도로 읽었는가? 형제들이여, 오늘 몇 번이나 주님을 접촉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출이 조금도 없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생산은 얼마나 빈곤한가!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적어도 일 년에 세 차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주님께 올 때는 어떤 것이든지 좋은 땅의 소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그들이 게을러서 그 땅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굶주릴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주님을 경배하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물을 한 아름 가지고 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매일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고 넘치도록 주님을 생산해 내야 한다. “...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필요를 채울 여분도 있어야 한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應食)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무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신 18:3 4). 무엇보다도 그 풍성한 산

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남겨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신 12:11). 그들이 추수할 때에는 주님을 위하여 첫 열매를 남겨 놓아야 했다.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첫 새끼는 주님의 것이었다. 주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놓기 위해,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분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좋은 땅에서의 생활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자신이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풍성한 산물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넘치도록 수확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단체적으로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모일 때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다른 형제도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얻은 그리스도의 일정한 분깃을 가져온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법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분을 우리의 산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보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다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의 교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매일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보자. 매일 아침 여러분은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일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누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당신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단순하게 누리고 체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온종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만 적용하게 하소서. 내일의 일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주님의 농작물에 물을 주는 법을 보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종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적용하며, 주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농장’은 열매가 얼마나 많고 아름답겠는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농장에는 소출이 풍성할 것이다. 주일이 되어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러 갈 때, 여러분은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의 주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두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갑니다. 나에게는 여분이 있고, 오른 손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남겨둔 좋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집회에 왔을 때 한 형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그와 교통을 나누며 여러분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일부를 그에게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누림으로 얻은 생산물의 일부를 그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했고,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줄 여분도 가지고 있다. 집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풍성한 산물 중 최상의 것이며, 그것을 주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성도들과 주님께 즐거이 드린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수확해 둔 것이다. 여러분은 장래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될 상당한 몫까지 저장해 놓았다.

만일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를 가지려면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산업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게

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집회는 얼마나 놀랍겠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공급할 것이고 여러분은 나에게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님의 어떤 것을 줄 것이고, 나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온갖 종류의 누림을 서로 나눠주고 함께 공유할 것이다. 그럴 때 주님도 그분 자신의 풍성한 몫을 소유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람함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전람회와 박람회가 있다. 때로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때로는 전세계로부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생산품을 전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그리스도, 우리가 경작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그리스도를 전시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집회는 그리스도의 온갖 종류의 산물이 전시되는 전람회,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자.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모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산물 중의 일부, 즉 과일이나 채소, 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땅의 풍성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아름답고 잘 익은 농산물과 수많은 양과 소 등을 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함께 모여져,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서로 함께 누리며 하나님 또한 그분 자신의 분깃을 얻으신다.

형제자매들이여, 교회 생활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그리스도를 누린다. 매일 매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산출해 내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날 그들은 함께 모인다. 그들의 모습은 손에만 아니라 어깨에도 그리스도를 가득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좋은 땅'에서 수확한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들은 찌푸리고 차가운 얼굴을 하고 두 손이 비어있는 채로 오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가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가 아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빛나며,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다. 한 형제는, "여기 제가 수고하여 얻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점에서, 또 저런 점에서 너무나 풍성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자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친절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달콤하고 실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수확한 그리스도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그리스도를 전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놀라운 경배요, 성도들에게는 공급이 되며, 사탄에게는 수치이다. 이러한 집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그러한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지방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대적이 기독교의 집회를 보고 웃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을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가져옴으로써 대적들을 역습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적과 그의 무리는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이것이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다. 이러한 누림과 교통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경배요, 원수에게는 수치이다. 그러한 경배 후에, 주님의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빈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풍성할 것이며,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이며, 모두가 기뻐하며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 그러한 집회가 끝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은 부요하고도 풍성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풍성한 산물을 가지고 와서 더욱 풍성한 산물을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그 땅에서의 생활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다만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의해 생산된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길

신명기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개인적인 길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단체적인 길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에 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이 그 땅의 산물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그러나 어떤 곡식은 개인적으로나 혼자서 누릴 수 없었다. 곡식의 십분의 일과 첫 열매는 다른 소산물의 십분의 일과 첫 열매와 함께, 따로 보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로 정해진 날 가져가야 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그것들을 누려야 했다. 이것이 단체적인 경배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역시 가축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들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그 짐승을 잡아서 먹고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축의 첫 새끼와 십분의 일은 먹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따로 간직하였다가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그분의 거처를 두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갔다. 그들은 한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풍성하고 충만한 그 땅의 산물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선택과 자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 즉 개인적인 방법과 단체적인 방법이 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뿐이다. 그리스도를 혼자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나 허용된다. 이것에 관하여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의 합일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기독교에 널리 만연된 상황과는 정반대이다. 이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돈과 분열이 생겨났는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보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분열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의 중심지에서 경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감히 또 다른 곳을 세우지 못했다. 그들이 모이고 경배하는 한 장소,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를 두시려고 모든 족속으로부터 선택한 한 장소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모든 땅 중에서 예루살렘은 하나 밖에 없었다. 그곳이 바로 모든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일 장소로 주님께서 정하신 곳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자.

신명기 12장 5절 8절 :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전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 땅 곧,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장소, 한 중심지, 합일의 한 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의 상황은 얼마나 반대되는가! 만일 어떤 곳에 아홉 명이나 열 명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은 쉽게 “자, 우리가 새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한다. 만일 그중의 두세 사람의 뜻이 다를 때에는, “좋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당신들의 교회를 만드십시오.”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도 자신의 교회를 만들 것이다. 한 지방에만도 소위 교회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각자의 원함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에 나가십시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싶다. 한 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홀로 그리스도를 누릴 자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일 때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은 주님 자신께서 지명한 바로 그곳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린다면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에 또 하나의 경배의 중심지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가에서 모인다면 우리는 2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려고까지 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모임이 시작된 지 두세 달 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모임을 별로 좋지 않게 느끼면 그들은 또 하나의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만일 당신들이 2가에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3가에서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 얼마나 혼란스런 일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제한도 규율도 없으며, 끝없

는 분열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의 공통된 터 위에 모여야 한다. 여러분은 이 터를 너무 율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방면에서는 율법적이어야 한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규율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경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심을 세울 권리가 없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열만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취하고 서 있어야 할 유일한 터는 합일의 터뿐이다. 혼자서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어떤 곳에도 다른 중심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그분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몸은 오직 하나요, 주님의 거처도 오직 하나이다. 그러므로 각처에 몸의 표현도 하나이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신명기를 읽어 보자.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규칙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 한 가지 규칙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땅의 소산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또 하나의 규칙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며 좋은 땅의 소산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자신의 기호를 따르며 자신의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할 권리도 없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두려워하고 떨며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당신의 거처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에 귀 기울이기를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충만하고, 풍성하며,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는

어느 때나, 항상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도 엄격한 법칙,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다. 주님을 찾으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주님께 말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란다.

그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충만한 생활이다. 부지런히 주님에 대해 수고함으로 두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 바로 합일의 터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이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란다.

제 16 장 그 땅의 결과 성전과 성

성경: 신 12:5 7, 17 18, 8:7 9, 엡 1:22 23, 2:19 22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다. 유월절 어린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매일의 만나, 생수가 흐르는 반석, 증거궤와 그분의 확장인 성막, 다양한 모든 제물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 거룩한 군대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거쳐 왔다. 마침내 우리는 그 땅, 즉 모든 것을 포함한 땅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 그림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의 체험의 규모가 증가됨

어린양으로부터 그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들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각 항목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완벽한 예표이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인 그 땅은 만유를 포함한 가장 큰 예표이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양은 진실로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러나 그것은 소규모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의 예표일 뿐이다. 물론 주님 자신에게는 제한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완전하며, 또한 완벽하다. 그러나 그분을 체험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어린양처럼 작은 규모로 체험한다.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체험한 이후부터 우리는 항상 전진하고 진보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면에 있어서 계속 진보하며 그분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커지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커지신다고 느끼게 된다. 매일 매일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점점 더 커지신다. 이제 우리 체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유를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한히 크신 분이시다. 그분은 광대한 땅이시다. 그 땅의 크기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이다. 그 너비와 길이에 한계가 없다. 깊이와 높이에도 한계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분의 광대함은 무한하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온 땅이다. 나머지 다른 항목들은 측정될 수 있다. 그 항목들이 예시하는 그리스도의 특성과 체험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다. 그러나 그 땅만 큼은 그렇지 않다. 그 땅으로 예시된 그리스도는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성숙과 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멈추라고 요구하신다. 유월절에는 누구도 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모든 일을 멈추어야 했다(출 12:16). 어린양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다. 만나를 먹는 일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들이 누리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다만 가서 만나를 취하여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법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매일의 양식으로 취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다만 이미 준비된 것을 값없이 모두 받아들이면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뿐이요, 하나님을 모독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궤에 이를 때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체험하면서 성막을 건축한

다. 우리가 그 땅에 이르게 되면, 일의 면은 더욱더 강화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땅은 어린양이나 만나와는 참으로 다르다.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렸다(민 11:9). 만나를 누리는 데는 아무 일도 요구되지 않았다. 다만 일어나서 만나를 모아 먹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더 이상 없었고 그 땅에서 나온 열매가 만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수 5:12). 우리는 이 차이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즉 만나를 누리는 데에는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 땅의 소산을 누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수고에 달려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좋고 놀라운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양이요, 매일의 만나요, 생수가 흐르는 반석이시다. 그분은 너무도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신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점점 자랄 때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도 아기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계속 공급되는 것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준다. 그러나 그들이 몇 년 동안 자란 후에는 가족 안에서 그들에게 작은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아마 그들보다 더 어린아이를 보살핀다든지 작은 심부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수년 동안 더 성장한 후에는 보다 큰 책임이 주어진다. 이제 그들이 이십 세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우리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훨씬 더 많이 누린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상당한 책임도 있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누리며,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여러분의 회사를 등록할 예정인가? 우리가 등록해야 할 회사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식회사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새크라멘토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그리스도의 몸을 지방적으로 표현하는 한 무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셔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사업은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회사는 바로 그리스도 주식회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회사가 전세계의 모든 도시에 지점을 갖는 것을 참으로 보고 싶다. 만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실재, 곧 그리스도를 유일한 사업으로 갖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런던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파리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도쿄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언젠가 우리는 세계 박람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에서도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고, 홍콩에 있는 그리스도 주식회사에서도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다.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생산한 그리스도를 한 곳에 가져와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람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전람회를 갖기 위해 함께 모이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누리고 공유하고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일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식물에 물을 주고 가지를 치며, 좋은 땅에서 일한 지 일 년이 되어 초막절이 왔다. 그때 온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그들 소산의 십분의 일과 첫 열매를 가지고 왔다. 그곳 예루살렘에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이 전시되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이 함께 갖는 이 잔치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부지런히 일한 결과였다.

이제 우리는 지극히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땅을 주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충분한 동역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준비해 주셨다.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비를 내려 주셨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비는 성령의 예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동역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소산물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역하느냐에 있다.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은 좋은 땅의 소산물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양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전부이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속하는 어린양이나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그들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지방 교회의 집회에 참석할 때에 그곳에 풍성한 전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온갖 종류의 그리스도의 산출물이 전시된다. 그것은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산한 좋은 것들이 풍성하다.

화목제

우리는 또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으로 그들의 소산을 가져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예표에 따르면, 그들이 생산한 것은 그리스도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또한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바쳤다.

고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친 제물들 중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한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였다. 화목제에는 그것을 드린 사람이 누릴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것도 있었고, 하

나님이 누릴 것도 있었다. 만일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려 한다면 거기에는 내 몫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몫도 있고, 하나님의 몫도 있다. 레위기 7장을 읽어 보라. 화목제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누릴 제물이요,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하나님도 함께 누릴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친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분깃도 있고, 나의 분깃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분깃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배이며, 대적 사탄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다.

성전

우리는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 중심지로 가져와야 한다. 나도 그리스도를 이 중심지로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중심지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갖게 되신다는 뜻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물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나려면 그들의 집, 곧 그들의 거처로 간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며, 그들과 교통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

신지를 묻고 있다. 그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는다. 만일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합일의 터 위에서 모인다면, 우리는 합당한 교회일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집 안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얻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만일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와서 매일 거주지가 없이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누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도 우체부는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배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구, 어떤 동네에 있는 한 집에 정착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한 주소를 갖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믿는 이들인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는다.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은 매우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어느 정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명확하고 참된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방에 정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주소가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 주식회사’가 있는 바로 그곳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온다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옹호하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무엇으로 건축되는가? 이것은 많은 믿는 이들과 연합되고 섞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

함한 땅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

건강한 미국 청년을 예로 들어 보자. 그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미국의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양육되었고, 미국의 소산물로 적셔지고 조성되었다. 그의 모든 음식은 미국 땅에서 거둬들인 것이다. 그는 미국의 달걀을 먹었고, 미국의 쇠고기를 먹었고, 미국의 닭고기, 미국의 감자, 미국의 오렌지, 미국의 사과 등을 먹었다. 그는 날마다 미국을 먹었고 미국은 매일 매일 그에 의해 소화되어 그와 연합되었다. 그는 미국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는 백 퍼센트 미국 사람이다.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소화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얼마 후면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된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국 사람으로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미국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다. 이와 같이, 만일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안다면, 다만 후각만 사용해도 중국 사람의 가문과 체질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육안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음식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후각을 사용하여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들은 또 다른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먹은 것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미국 사람이 미국의 어떠한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늘 아침 그리스도를 조금 먹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를 조금 먹었다고 하자. 그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는 점차적으로 그에게 소화되고 그와 연합되어, 그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다. 그가 자신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일 때, 그도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가져온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

신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의 조성성분이 되신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함께 모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고,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시한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참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표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과 함께 모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있는 것이다.

성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전은 확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때 그리스도의 권위의 실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한 누림 가운데서, 그러한 누림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또 서로서로에게 쉽게 순복하게 된다. 우리는 순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린 다음 서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군대로 편성되었는데, 군대 안에서 서로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군대가 아니라면 서로 싸울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강도나 건달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 순복이 없으면 군대도 없다. 우리가 그러한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에게 순복할 것이다. 우리는 순복하지 않을 수 없다. 참된 사랑은 순복에 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순복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나

의 선호나, 선택이나, 갈망에 있지 않고 순복하는 데 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순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확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된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권위가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 때 성전이 있는 성이 있게 된다. 성과 성전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섞인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집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실 뿐 아니라 여기에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싶어 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루이스 빌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루이스 빌에서 이것을 찾으실 것이며, 만일 여러분이 새크라멘토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크라멘토에서 이 실재를 찾으신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집과 그분의 왕국, 그분의 성전과 그분의 성을 찾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유월절 어린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체험을 거쳐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그 땅,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땅에서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즉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표현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실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땅이 있게 되며, 성전과 성이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성전과 성에 관해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법, 그 땅을 소유하는 법, 그 땅을 누리는 법, 그 땅에서 사는 법, 그 땅에서 일하는 법,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 법 등 그 땅에 관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과 성전과 성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스도는 머리스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몸, 곧 교회이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에 관해 말했다. 그 땅은 바로 교회,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분의 몸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것을 찾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어 그분의 은혜에 의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좋은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그 결과 성전과 성이 존재하게 될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에서 계속 자라갈 것이다.

주님의 두 중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워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 생활의 실행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면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의 충성스런 증인으로서 1972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고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925년, 19세 때에 역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자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처음 7년 동안 그는 플리머스 형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워치만 니를 만났고, 그 이후로 1949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니 형제님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종의 사역과 일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와 중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9년 워치만 니는,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위트니스 리에게 중국 대륙 밖의 대만 섬에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백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트니스 리는 35년 이상 주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7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로서 300권 이상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열어 보여 주었고, 이것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워치만 니와 윌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 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

4.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에서 운행하시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